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서



2024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Final Report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서**

**2024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Final Report**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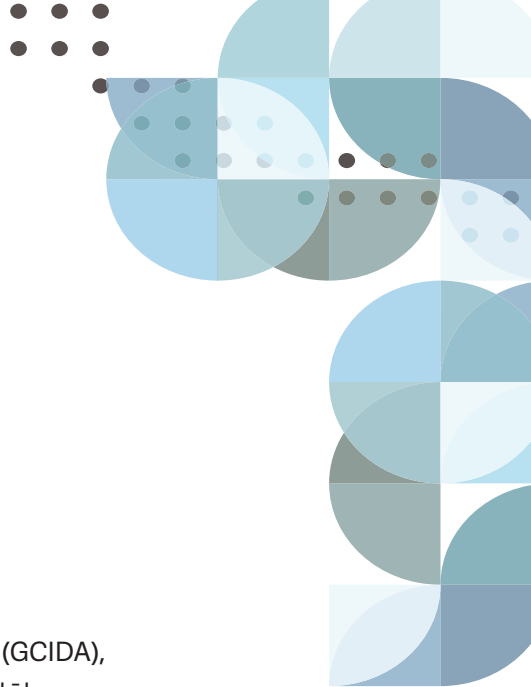
워크숍 개요	04
프로그램	06
인사말	08
세션 발표	14
그룹토론	42
현장방문	46
현장에서 담은 이야기	50
함께 그리는 국제보호지역의 미래	54
참가자 설문조사	60

Overview of Seminar	70
Programme	72
Messages from the Hosts	74
Session Presentations	82
Group Discussion	118
On-Site Visits	122
Photos	126
Shaping the Future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130
Participant Survey Responses	136

워크숍 개요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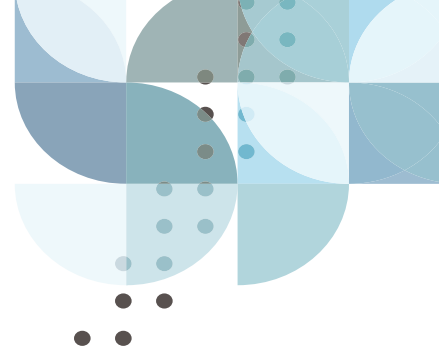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전략 및 다자간 환경협약의 목표를 실행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소로서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제보호지역은 자연 보전뿐 아니라 생태관광 등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 방안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개 이상 중복 지정 지역과 함께 전체 지정 수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국제보호지역을 지정 목적에 맞게 보호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여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보호지역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함



주최/주관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후원	환경부, 제주도, 국립공원공단
일시	2024. 11. 19.(화) – 22.(금) / 3박 4일
장소	제주시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유스호스텔
참가자	국내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 관리의 주요 과제 논의• 국제보호지역 관리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제주도 국제보호지역 현장방문 및 관리 제언

프로그램

2024. 11. 19 (화)	
17:30 ~ 18:00	참가자 등록
18:00 ~ 18:30	참가자 자기소개 (Ice-Breaking)
18:30 ~	환영 만찬
2024. 11. 20 (수)	
~ 09:00	아침식사
09:00 ~ 10:30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단체사진 촬영 • GCIDA 소개 • 국제보호지역 이해 • 국가보호지역 정책방향
10:30 ~ 12:00	[세션1] 국제보호지역 주민참여 • 주민참여(파트너십, 생태관광, 거버넌스) 우수사례 • 그룹토론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8:00	제주도 국제보호지역 현장 답사 • 제주도 MIDA에 대한 세계유산본부 역할 • 선흘리 주민활동에 대한 동백동산습지센터 역할
18:00 ~ 20:00	저녁식사
20:00 ~ 21:00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운영 토론 (MAB한국위원회)



2024. 11. 21 (목)	
~ 09:30	아침식사
09:30 ~ 12:00	[세션2]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및 홍보 • 국제보호지역의 해설과 교육, 브랜드 활용방안 • 그룹토론 및 발표 준비 • 그룹토론 결과 발표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8:00	제주도 국제보호지역 현장 답사 • 오소리 해안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 오소리 해안습지 철새도래지 탐조프로그램
18:00 ~ 20:00	저녁식사
2024. 11. 22 (금)	
~ 09:30	아침식사
09:30 ~ 11:30	[세션3] 국제보호지역 관리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사례 •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사례 • 연천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 관리 현황
11:30 ~ 12:00	폐회 및 설문조사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30	제주공항 이동 및 해산

인사말

환영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자연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 오늘 워크숍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문화유산인가요? 유네스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새로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는 등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유네스코의 이미지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과 같은 유네스코 지정지역일 것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곳곳에서 유네스코와 지정지역 로고를 자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주도에서 열리는 오늘 워크숍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제주도에 설립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즉 GCIDA'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GCIDA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보호지역 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국제 보호지역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안하여 올해 설립했습니다.

우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9년부터 제주도와 함께 3년간 시범사업으로 오늘과 같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여 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GCIDA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2019년 워크숍에 참가했던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GCIDA가 설립된 제주도에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가 다수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자연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만든 특별한 가치를 간직한 섬입니다. '생명의 숲'이라 불리는 곳자왈, 화산 활동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수월봉 지질트레일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여년 간 제주도의 경험과 활동은 국제보호지역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연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국제보호지역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지구의 배움터'입니다. 오늘 워크숍은 이 배움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이 모여 성과와 지혜를 공유하며,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제주 바다의 끝임없이 다른 섬과 육지를 이어주듯,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연결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중에는 국제보호지역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새롭게 업무를 맡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람사르습지나 세계지질공원 등 각자 맡은 분야는 잘 알지만, 다른 국제보호지역은 낯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바로 이런 다양성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준비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큼니다. 새로운 분들과 만나며 신선한 자극을 받고, 우수 사례도 공유하며, 앞으로 네트워크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GCIDA는 앞으로도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힘쓰는 여러분과 또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3일간 제주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



존경하는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유산, 람사르습지를 책임지고 가꾸는 관리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내용은 단순히 한 지역의 관리와 보전을 넘어,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강조되는 바와 같이, 국제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러한 보호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보호지역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열정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의 개최지인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유산, 람사르습지라는 네 가지 국제보호지역을 동시에 보유한 특별한 곳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태계를 직접 탐방하며, 제주의 유산을 몸으로 체험하고 더욱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보호 활동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워크숍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발표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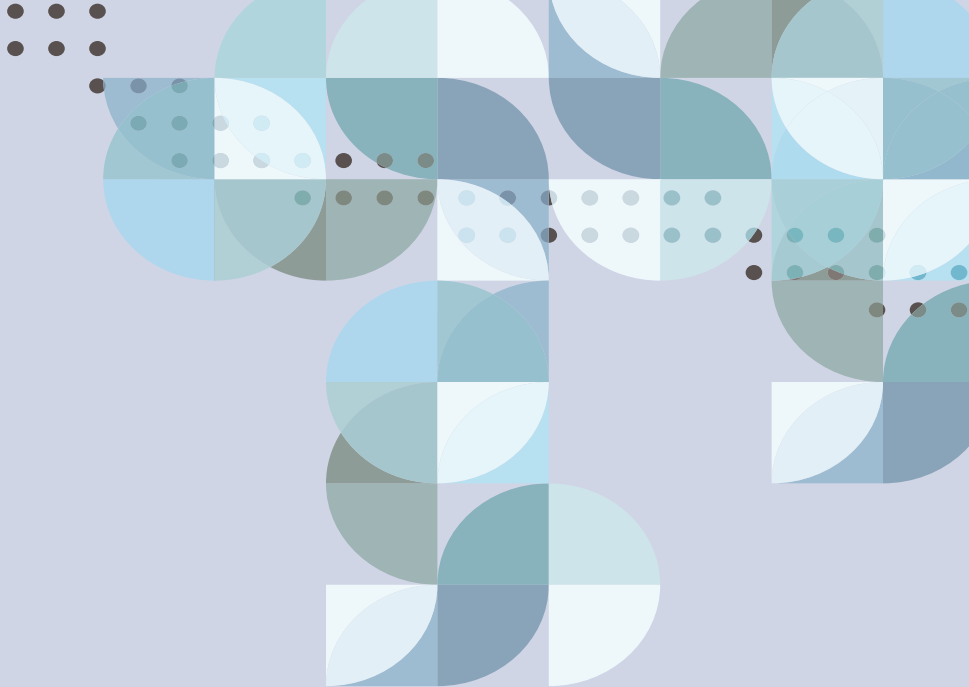
세션 및 그룹토론 발표자료는
다음의 QR 코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자료집

행사자료집은
다음의 QR코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소개

한창준 GCIDA 훈련교류팀 팀장



국제보호지역과 GCIDA

전 세계에는 약 248개국에 26만 개의 국가별 보호지역이 있으며, 이는 육상 면적의 15.03%, 해양 면적의 7.56%에 해당한다. 보호지역통계(WDPA) IUCN 카테고리 II 기준, 국가별 국립공원은 5,848개가 있다.

국제보호지역(IDAs,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정의를 내린다면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UNESCO, IUCN 등)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국제보호지역은 다음의 4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 **세계유산:** 6년 주기로 재검토하며,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전을 중점으로 한다. 국내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이 지정되어 있다.
- **생물권보전지역:** 10년마다 재검토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등 10개소가 있다.
- **세계지질공원:** 4년 주기로 평가하며, 지질학적 가치 보존과 지질관광을 촉진한다. 국내에는 무등산,

한탄강 등 5개소가 있다.

- **람사르습지:** 6년마다 검토하며,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한다. 국내에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되며 창녕 우포늪 등 26개소가 있다.

국가보호지역은 국내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현재 약 1,727개소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7.5%를 차지하며, 환경부가 육상 보호지역을, 해양수산부가 해양 및 연안 보호지역(1.8%)을 각각 관리한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지구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30×30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동향 중 다중 국제지정지역 관심

다중 국제지정지역(MIDAs,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은 하나의 지역이 여러 국제기구나 협약에 의해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여개의 다중 국제지정지역이 존재한다. MIDA는 각각의 지정 목표, 유효 기간, 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조화로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은 모두 유네스코의 관리를 받지만, 람사르습지는 별도의 국제 협약에 의해 관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GCIDA(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 국제보호지역글로벌연구훈련센터)가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로 설립되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센터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었다.

국내 다중 국제지정지역(MIDAs) 사례: 제주도

제주도가 국내 대표적인 다중 국제지정지역 사례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제주 물영아리오름(2006년), 제주 물장오리오름(2008년), 제주 1100고지(2009년), 제주 동백동산습지(2011년), 제주 숨은물뱅디(2015년)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소개

GCIDA는 2012년 제주도에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결의안에 따라 설립이 제안되었다. 이후 2016년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 설립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2023년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에 제주도에 설립되었다.

GCIDA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의 3)을 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인력 및 예산을 지원받는 유네스코 카테고리1 센터

와 달리 GCIDA는 카테고리2센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GCIDA는 제주시 돌문화공원 2층에 위치하며, 현재 1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차기 센터장이 부임 예정으로, 조직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12억 원 규모의 예산은 환경부와 제주도 보조금으로 편성되며, 교육, 훈련, 연구 등에 사용된다.

운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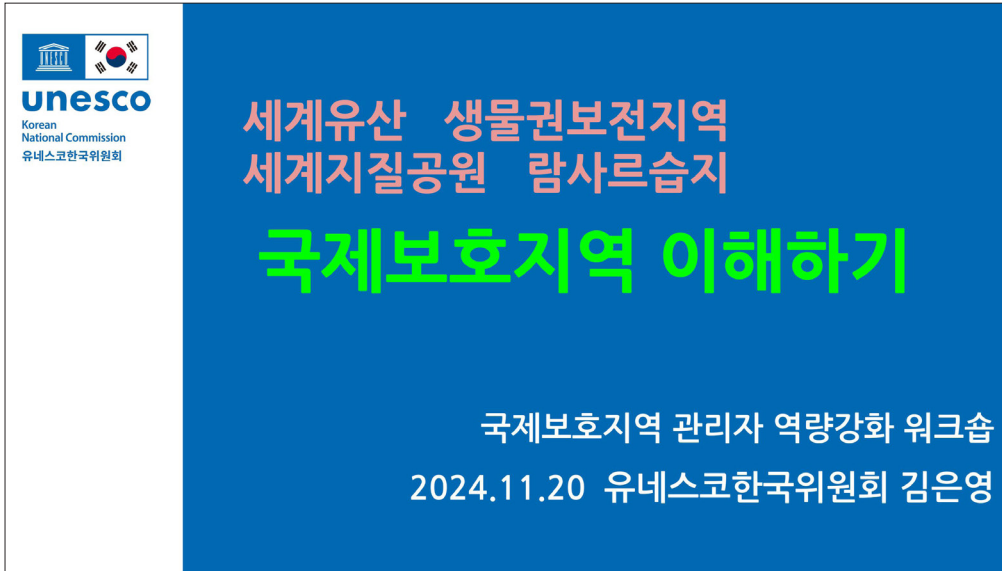
GCIDA는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모델 개발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 **연구개발:** MIDA 정책 연구, 보호지역 관리 모델 개발, 재정적 기반 연구 등을 수행한다.
- **교육훈련:**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학위 과정 및 국제 공인 자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한다.
- **네트워크 구축:** 국제보호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 교육생 및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 지식 및 성과 확산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GCIDA는 국제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국제보호지역 이해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센터장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역사와 역할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와 같은 다중지정 지역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하며, 국제보호지역의 발전 방향과 지역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례를 통해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관리 필요성과 지역사회 및 환경보전 간 조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유네스코의 설립 배경과 활동

유네스코는 UN 산하의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구이다. 설립 당시의 배경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세계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적, 도덕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 또한 유네스코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특히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의 등장과 발전

국제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최초의 국제보호지역 개념은 1872년 옐로스톤 국립공원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환경오염과 자연 훼손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1971년 람사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어서 1972년에는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유네스코는 MAB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보호지역들은 자연 보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의 주요 제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이 있으며, 람사르습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하지 않으나 관련 협약으로 보호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목표로 하며,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발전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보호를 위한 핵심구역 외에도 완충구역과 협력구역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유산은 문화적 또는 자연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경관, 지질, 생태, 생물다양성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 상태에 따라 위험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재가 해제될 수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질학적 보전과 교육,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관리된다. 현장 실사를 통한 엄격한 재인증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람사르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연안, 내륙, 인공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를 포함하며, 의사소통, 교육, 참여 등을 포함하는 CEPA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복 지정 지역과 관리의 필요성

중복 지정 지역은 하나의 장소가 여러 보호지역 제도로 중복 지정된 경우를 말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가 중복 지정되어 있다. 중복 지정 지역은 다양한 보호 목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의 발전을 조화롭게 도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는 보호지역 관리와 지속 가능성 확보의 핵심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국제보호지역의 미래

국제보호지역은 자연 보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며, 각 보호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앞으로도 국제보호지역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가보호지역 정책방향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선임연구위원



국가 보호지역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관련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보호지역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를 글로벌 목표와 연결하는 과제를 논의하였다.

국가보호지역 정책 방향: 개념과 실천

국제보호지역은 지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보호지역은 지리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공간으로, 법적 또는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자연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며,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보호지역 지정이 국가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글로벌 목표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을 통해 보호지역 외에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자연공존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목표와 그 과정

글로벌 보전 목표는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육상 지역의 10%를 보호한다는 초기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후 2010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11 Target)에서는 육상 지역의 17%, 해양 지역의 10%를 보호하는 목표로 확대되었다.

2021년 이후에는 2030년까지 육상, 내륙수역, 연안·해양의 30%를 보전하는 '30x30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 목표는 단순히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Right Conservation은 적합한 위치(중요지역, 생태계 대표성 등)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에 있어 폭넓은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자연공존지역(OECM)은 보호지역 정책과 더불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보전 접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보호지역 정책과 현황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체계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 보전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육상과 해양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며, 국가 보호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60년대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공원법을 시작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관련 법의 분화되고, 다양한 유형의 보호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 지정이 지역 주민과 기업에 규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보호지역의 중복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와 이에 따른 대응의 균형을 맞추고,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지역사회와 기업 등 민간이 보호지역 관리와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사회 전반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호지역 지정이 단순히 공권력의 집중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며, 보호와 발전의 균형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CIDA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관리·관할에 기여하고, 다중 보호지역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을 향한 전략과 과제

보호지역 유형별로 중장기 목표와 관련 정책 등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 정부계획과 함께 글로벌 목

표(K-M GBF)를 반영하여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주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및 자연공존지역 발굴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을 통해 육상과 해양에서 각각 30%로 확대하고,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였다.

- **보호지역 및 OECM 확대:** 보호지역과 OECM의 발굴과 지정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의 보전을 강화한다.
- **보호지역 및 OECM 관리체계 개선:**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보호지역 내 주민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보호지역과 OECM 인근 지역사회에 혜택을 확대한다.

자연공존지역: 새로운 보전의 방향

자연공존지역은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자연공존지역의 실현을 위해 민간 참여와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지원하는 '자연공존(30x30)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플랫폼은 12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자연공존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훼손지의 복원 수요를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기업들이 자연공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연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자연공존 문화를 향해

국가보호지역 정책은 단순히 면적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며,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글로벌 목표와 국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공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공존지역과 더불어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잘 보전된 자연에 기반한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자연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 보호지역 관리의 관점에서

서승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센터장



국제보호지역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참여는 거버넌스의 가장 높은 수준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지역 주민은 보호구역 정책과 관리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서, 이들의 의견과 참여가 배제될 경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거버넌스의 개념과 변화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이슈를 논의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며 이를 실행하는 구조적 체계다. 과거의 정부 주도적 방식에서 벗어나 다분야 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CEPA의 개념과 접근 방식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wareness)가 강조된다. 이는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 **소통(Communication):** 정보 전달이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 **교육(Education):** 주민들에게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 **참여(Participation):** 주민들이 관리 계획 수립, 실행, 평가 등 보호구역 관리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CEPA의 가장 높은 단계로, 관련 절차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주민 참여를 통해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 **인식증진(Awareness):** 주민들이 보호구역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초기 단계로, 캠페인, 퀴즈 등의 활동을 활용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 데이와 같은 활동은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했다.

CEPA는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민 참여를 장려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이 보호구역 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보호구역 관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구역 관리 단계와 주민 참여

습지 관리는 모니터링,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이행, 평가라는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보호구역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시민과학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나 현재 시민과학 데이터는 전문성과 관리구조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관리계획 수립은 주민들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용역 중심의 계획 수립 방식으로 인해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관리계획 이행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서식지 관리 등 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형성하고 지역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평가는 전문가가 생태적 변화를 평가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다음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민 참여의 사례

인제군 용늪 관리위원회는 주민 위원장이 위원회를 주도하며 정책 설정 및 지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로 꼽힌다. 주민들은 용늪 탐방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 활동에 관여하며, 지역 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형성했다. 제주 조천읍 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며, 지역 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순천의 흑두루미 보호 활동은 주민들에게 단기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를 유도한 사례다. 주민들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갈대 수확, 먹이주기, 쉼터 관리 등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보호구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문제점과 제언

현재 국내에서는 주민들이 관리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관리계획은 주로 외주 용역에 의존하며, 주민들에게 관리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리계획 이행 및 평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장기적인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보호구역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주민들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시민과학 데이터를 전문가가 보완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높여야 한다.

주민참여는 보호구역 관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형태를 구현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구조적 참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보호구역 관리를 주도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보호구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주민 참여 거버넌스 - 한국의 갯벌 사례

문경오 前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제주 선몰 동백동산 에코존유스호텔
2024.11.20.(수) 11:00

지역주민 참여 거버넌스
- 한국의 갯벌 사례 -

문 경 오 박사
세계유산위원회 한국대표단 자연유산 기술자문
前)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국제보호지역 주민참여 사례: 한국의 갯벌 사례

한국의 갯벌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을 포괄하고 있는 다중 국제보호지역 (MIDAs)의 사례이다.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의 다섯 개 갯벌 지역은 생태적 가치와 함께 주민 중심의 협력적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갯벌 지역은 세계유산의 유산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 중심의 활동이 시행되고 있으며, 갯벌주변의 육상과 해상 지역은 완충구역이나 협력구역으로 설정되어 보전과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갯벌은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의 터전으로, 주민들은 갯벌 관리의 핵심 주체로 간주된다. 주민들은 갯벌 활용에 대한 전통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이어오며, 이러한 전문성은 보전 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과 자발적 참여 유도는 성공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 지역 주민과의 신뢰 관계 구축

과거 흑산도 사례에서는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로 접근하여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경험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NGO나 민간단체의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전략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 모니터링과 환경 관리 참여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해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갯벌에서 채취되는 조개류의 양이나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은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보전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

- 의사결정 체계 내 주민 포함

주민 대표를 의사결정 기구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향후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장단을 선출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이사회의 임원으로 참여하여 보다 강화된 지역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의 과제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 통합 관리 조직

국내적 사정으로 인해 다중 국제보호지역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효율적인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자연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처와의 대응을 위해 지자체 내 각기 다른 부서로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다. '유네스코과'와 같이 하나의 통합부서에서 다중 국제보호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신안은 '세계유산과'라는 통합 부서가 있고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습지보호지역을 포괄하는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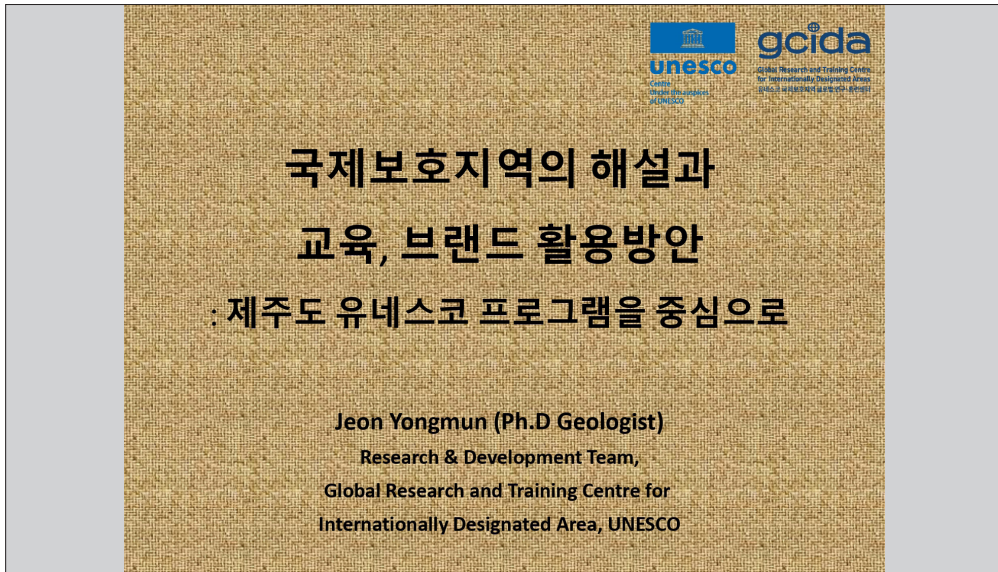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연결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갯벌 관련 지원 프로그램(명품 마을,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브랜드화

갯벌은 국제적 브랜드로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갯벌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 보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보호지역의 해설과 교육, 브랜드 활용방안: 제주도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용문 GCIDA 연구개발팀 팀장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중복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하여 자연자원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제주도의 다양한 사례는 국제보호지역의 통합적 활용과 브랜드화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국제보호지역과 GCIDA의 역할

전 세계적으로 약 400개의 다중 지정 국제보호지역이 존재하며,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이 중첩된 대표적 사례이다. 다중 지정 지역은 관리 조직과 계획이 서로 달라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GCID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보호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도 사례는 이러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사례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초기 한라산 일부 지역만 지정되었으나, 이후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지정 초기에는 규제에 대한 우려로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 설명회와 캠페인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와 보존 가치를 알리며 협력을 이끌어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버섯, 유기농 제품 등)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보존 활동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례리 마을에서는 감귤 따기, 숲 탐방 등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는 주민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지역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사례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 구성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세계유산 축전은 비공개 동굴 구간 개방과 체험 활동을 통해 방문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팝업 북과 같은 시각적 콘텐츠는 화산과 동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세계유산 가치를 주제로 한 만화 공모전은 대중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했다.

또한, 이동식 VR 장비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세계유산을 가상으로 탐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세계자연유산의 독보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사례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에서 비교적 늦게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브랜드화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GEO 브랜드는 숙박업소,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업종과 연계되어 지질공원의 가치를 강조하며,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 지질명소에서는 자연, 역사, 문화를 융합한 지오투레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월봉, 산방산, 비양도 등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독창적인 탐방 경험을 제공하며, 지질공원의 보존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지오스쿨은 지질공원 해설사가 직접 운영하며, 수익은 보존 활동에 재투자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학생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협력과 향후 과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의 세 브랜드는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GCIDA는 이 세 브랜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며,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사례는 유네스코 브랜드를 통해 자연자원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교육,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보호지역 관리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체험교육의 열린공간

최동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사무소 팀장



배경 및 지정 현황

한탄강은 한반도 중심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질적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 201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후 2020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총 면적은 약 1,165km²로 서울의 두 배에 달한다. 2023년 재지정을 통해 향후 4년간 세계 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탄강의 지질학적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노력을 반영한다.

지역적 특징과 가치

한탄강은 북한과 연결된 지질적 역사를 포함하며, 남북 협력을 염두에 둔 연구와 보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둘기낭 폭포와 같은 명소는 과거 댐 건설로 인해 환경 파괴가 우려되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전되었으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교육과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해설사 프로그램

한탄강의 지질·역사적·문화적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해설사가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창출 및 주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연간 약 45,000명이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지질,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며, VR 교육 등 현대적 기술을 활용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지오투레일'과 명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2013년부터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핵심지역 외의 비공개 지역까지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공기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료 연수를 진행,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의 '한탄강 청소년 해설사' 강좌형 프로그램은 지역 차세대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본, 그리스 등과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일본과의 현장 학습 및 교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와 한탄강의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다.

해설사 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역량 제고

한탄강 해설사 프로그램은 방문객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사전 인지도가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설문 결과, 해설 프로그램 이용 방문객의 약 70%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사전 예약자는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해설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지향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를 통해 한탄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연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사례

김민승 창녕군 우포생태따오기과 주무관



창녕군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철학 아래, 보전과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며 2024년 7월 모로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MAB-ICC)에서 영남권 최초로 국내 10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육상 및 연안-해양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증진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기존 국내법 외에 추가적인 법적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 때문에 규제 강화나 개발 제한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실제로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 보전을 조화롭게 이끄는 제도적 틀로, 보전과 발전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자연 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는 모델 지역으로 설정된다.

2024년 11월 기준,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 136개국에 75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설악산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창녕군은 2024년 지정된 영남권 최초의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녕군 소개

창녕군은 경상남도에 위치하며, 부곡하와이와 우포늪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습지로, 이를 품은 창녕군은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생태계 보전과 교육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습지 생태계를 넘어 산림 및 농업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실현하고자 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배경으로는 기존 창녕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된 것에 이어 생태관광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며 추진된 점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과정

창녕군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과정은 2020년 경남환경재단과 협력하여 예비 신청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21년에는 MAB한국위원회의 현지 실사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2023년에는 주민설명회와 환경부 동의를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지정 과정에서 주요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가 병행되었다.

유네스코 심사에서 화왕산과 우포늪을 핵심구역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완충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 보호가 미흡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창녕군은 동쪽 경계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며, 협력구역에서는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창녕군은 2024년 7월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지정 승인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에 대한 오해로 지정 과정에서 창녕군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겪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주요 기관과의 협의였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대표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예비 신청과 본 신청을 제출하기 전, 주요 관련 기관들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창녕군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우려도 극복해야 했다. 일부 주민들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개발 투자가 저해되거나 지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창녕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추가적인 규제나 행위 제한

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창녕군은 주요 기관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준비하는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소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구성된다. 핵심구역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이 포함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된다. 완충구역은 하천과 산림으로 구성되어 핵심구역을 둘러싸며 보호 역할을 한다. 협력구역은 주거지와 상업단지를 포함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역 설정은 창녕군의 생태적 특성과 지역적 필요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우포늪은 약 800여 종의 식물과 200여 종의 철새가 서식하는 생태적 보고로, 멸종위기종인 따오기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중요한 서식지이다. 특히 따오기는 1979년 한반도에서 멸종되었으나, 2008년 중국에서 도입하여 복원 작업을 시작한 이후, 2024년 기준 340마리가 자연에서 서식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부터 자연 부화에도 성공하며 생태계 복원과 보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한 생태관광 자원의 창출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화왕산은 특색 있는 자연경관과 다양한 식생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으로도 선정되었으며, 과거 역새 태우기 축제 등으로 창녕군의 대표 관광지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창녕군은 부곡온천, 관룡사,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와 문화를 아우르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은 2024년 12월 2일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 및 음악회를 개최하여 인증서를 전달받고 지역주민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창녕군이 단순한 보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사례

주성욱 청송군 관광정책과 주무관



지질유산은 생태계 보전과 유사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암석은 수백만 년에서 억 단위의 시간 동안 형성된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보존 가치는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지질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및 국내적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과 경관의 보존,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지질학적 특성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와 재인증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이러한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며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송은 2016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첫 평가를 받은 이후 2017년에 등재되었으며, 2022년 재인증 절차를 통해 녹색 카드를 받아 지질공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지역 협력, 관광 활성화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지질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사례

지질유산은 단순히 자연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과거 지구의 환경과 지질학적 역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질유산은 한 국가 내에서 중요한 경우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며,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보존된다.

청송은 주왕산의 기암 단애, 청송 꽃돌(청송 구과상 유문암), 신성리 공룡발자국 등 다양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질유산은 단순한 경관적 아름다움을 넘어, 과거의 지질학적 역사를 담고 있어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크다.

특히 주왕산은 중생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지형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다. 화산재가 굳어져 형성된 암석에 의해 발달한 험곡, 폭포, 동굴 등은 독특한 경관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높은 지질학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지질유산은 지역의 핵심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며, 지역 경제와 교육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재인증 절차와 평가 항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관리 수준을 평가받는 재인증 절차를 거친다. 재인증 과정은 1년 전 요약 보고서 제출로 시작되며, 재인증 당해 연도에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결과에 따라 황색카드 또는 녹색카드를 부여한다. 황색카드를 받은 경우 2년 내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미흡 시에는 지질공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 반면, 보완이 이루어지면 녹색카드로 전환된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 지질공원 영역, 교육 및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이 포함된다. 특히, 최초 인증평가 또는 이전 재인증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는 지질공원의 지속 가능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된다.

• 권고사항 이행 여부

지질공원 품질 유지를 위해 각 지질공원 현황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안내판에 영어 안내 추가, △교육 역량 강화, △지질공원 가시성 확보, △지질공원 인프라 확충 등의 권고가 포함된다.

• 영역

지질공원의 명확한 경계 설정 및 가시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한다. 예컨대, △지질공원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지질공원 로고와 안내판 등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있는지,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질공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지질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를 확인한다.

• 타유산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이 보유한 자연, 문화, 무형 유

산을 비롯해 기후변화와도 연계하여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질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해당 지질공원이 본인의 지질유산을 다른 유형의 유산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하는지도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 및 파트너십**

지질공원의 운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역주민, 다양한 기관, 단체, 타 지질공원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참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국내외 교류 등을 평가한다.

청송 지질공원의 교육과 지역 협력

청송은 교육과 지역 협력을 통해 지질공원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정규 교과목에 지질공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지역의 지질유산에 대해 배우고, 학습 결과를 지오파크 페스티벌에서 공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다.

또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층에게도 지질공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송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과 현장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지질공원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청송군은 지질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질공원의 파트너 업체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득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지질공원 보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교육, 지역 협력, 관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질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이루는 청송의 사례는 다른 지질공원과 국제 보호지역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연천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 관리 현황

유미연 연천군청 관광과 생태전문가



연천군은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연천군의 유네스코 지정지역 추진 배경, 관리 체계, 지역 주민과의 협력,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다루었다.

유네스코 다중 지정 지역 지정 배경과 과정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서울의 약 1.2배 크기이지만 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적다. 군 면적의 95%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이 크고, 지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DMZ 평화지대화 논의와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처음 추진되었으나, 주민 공감대 부족으로 2012년 중앙정부 주도의 지정 시도는 무산되었다. 이후, 주민 아카데미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한 결과, 2019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인증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천군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이

아닌 지방정부와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받았고, 포천시, 철원군과 협력하여 세계지질공원 공동 지정을 이루어 지역주도 및 지역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 관리 체계

연천군은 2020년에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의 통합 관리를 목표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지정지역별 전문가를 채용하고, 군청 내 전담 조직(관광과 지질생태팀)을 통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다중지정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유네스코과' 신설이 제안되었으며, 전문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연천군이 자연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전 사업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연천군은 2021년부터 새와 생명의 터와 함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조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호사비오리와 두루미 등 주요 서식지를 확인하여 지역 생태계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두루미 도래지를 천연기념물로, 재인폭포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받았다. 호사비오리의 최대 서식지인 연천 임진강을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에 등재시키며 지질공원의 생태적 중요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전을 넘어 지역 자연 자원의 국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존 관광과 파트너십 구축

연천군의 4대 군정방침 중 하나는 '보존관광'이다. 그 일환으로 NGO 새와 생명의 터, 미국 UC버클리, 기업과 협력하여 한탄강 생태습지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중면과 백학면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및 문화예술특화 관광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이어졌으며, 두루미 보호를 위한 친환경 울타리 설치, DMZ 생태습지지원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두루미 체험 프로그램, 농산물 패키지 개발, DMZ백학문화활용소(현 백학문화공간) 등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패키지 상품은 판매 한 달 만에 완판되며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재인폭포를 중심으로 한 전통 설화 기반 실경 공연, 플리마켓, 야간 천체 관측 등 다양한 지질생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경제와 문화적 자원의 융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 교육과 참여 활성화

연천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전부터 3년간 DMZ주민아카데미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사 연수 및

지역 방문 교육을 통해 교사,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실내교육뿐 아니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현장교육 형태의 생물다양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해설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인 ‘한탄임진강생태관광협회’, ‘새와 생명의 터 연천’이 경기도민과 지역주민, 교사, 디지털관광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관내외 학교들과 연계하여 지질생태와 예술을 융합한 교육프로그램, 지질탐사 및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예술가들과 연계한 지질생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연천군의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과 지질생태가치를 홍보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천 이음메이트’를 운영하며, 2023년부터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재인폭포에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 3인을 배치, 방문객에게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촉각 안내판과 점자로된 프로그램 소개 리플렛도 개발 중이다. 이 같은 주민 교육과 참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이 보전 활동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맞게 모두가 평등하게 유네스코 지정지역의 관광을 누릴 수 있게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 및 국내 협력

연천군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국가지질공원사무국,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청년포럼,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클레이를 통한 독일 엘베강 경관 생물권보전지역, 일본 하쿠산 세계지질공원 등과의 벤치마킹 및 교류는 연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천군의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 통합 SNS ‘연네스코(연천+유네스코)’를 통해 지역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협력기관들과 통합 운영하고,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는 연천군청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대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메뉴와 홈페이지 링크 연결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과제

연천군은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25년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및 공모사업을 활용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며,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연천군은 지역 주민,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자연기반 도시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그룹토론 결과 발표

그룹 1

지자체 입장에서의 보호지역 관리 방안 지자체는 보호지역 관리에서 지역 협력과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 확장을 핵심 요소로 논의했다. 보호지역의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활용한 브랜드화 사례로는 국립공원의 서식생물을 캐릭터화하여 상품화하거나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 방식(예: 국립공원공단의 봉제굿즈 공식업체 골든베어 상사 등)이 제시되었다. 한탄강 지질공원에서는 지역적 정체성을 살린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무등산의 명품마을 프로그램과 한탄강 이주 마을 사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논의되었다. 무등산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와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지역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탄강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며 1인 1자격증 운동을 통해 마을의 필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투자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토론에서는 단기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주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룹 2

주민 참여와 브랜드 홍보 방안 2조는 양구군청, 국립생태원, 설악산 국립공원, 서천군청, 부안군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국제보호지역 주민 참여와 브랜드 홍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민 참여 사례 서천군은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성공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주민들은 자연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생태적 가치를 높였고, 앞으로는 유부도 주민들을 해설사로 양성하여 자연과 문화 관광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외래종 제거와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며, 설악산 시민대학과 백두대간 생태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생산품과의 연계 부족은 한계로 지적되었고, 황태 브랜드화를 검토 중이다. 양구군은 주민정원사 프로그램과 생물 다양성 탐사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브랜드 홍보 사례 람사르습지 홍보를 위해 국립생태원은 KIA 타이거즈와 협력하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기념품을 배포하며 국제적 관심을 유도했다. 설악산은 기념품 중심의 브랜드화를 추진 중이며, 서천군은 주민 해설사 양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교육과 기업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보호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통합적 전략이 요구된다.



그룹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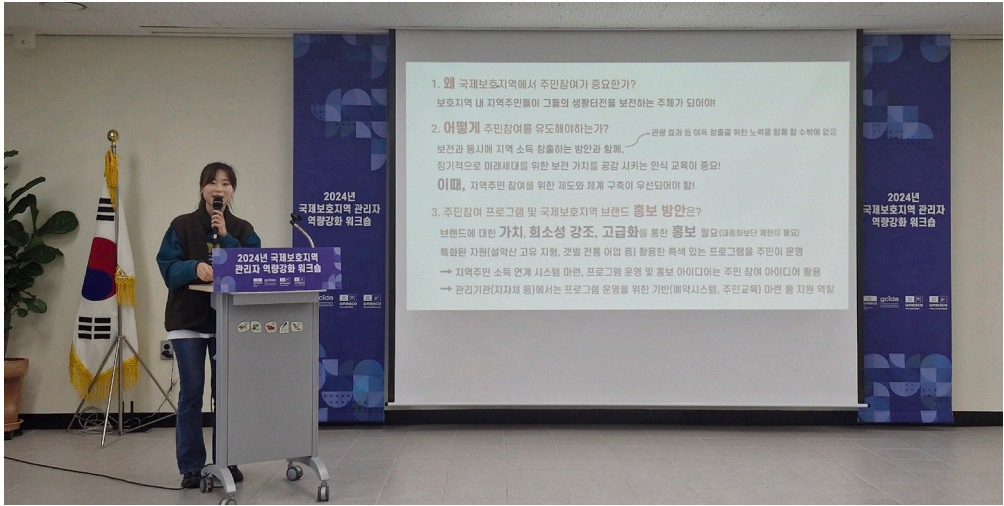
주민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 3조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국제보호지역의 성공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참여 사례 서천 갯벌의 바다학교와 주왕산의 지오레인지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자긍심을 고취시킨 사례로 공유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감시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감시와 해설 활동을 통해 지역 보전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브랜드 홍보 방안 무등산의 시민과학자 프로그램은 주민이 현장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전문가와 연계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전 활동의 기여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정규 교육 과정에 보호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지역 자원과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켰다. 주요 논의는 프로그램 차별화와 교육 대상 타겟팅의 중요성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보호지역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그룹 4

복합 지정 보호지역의 주민 참여와 브랜드 활용 4조는 고창군의 람사르습지와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국제보호지역의 주민 참여 방안과 브랜드 활용 전략을 논의하였다. 고창군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복원 작업과 환경 관리를 진행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유해식물 제거와 복원 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창출과 복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해설사의 역할도 강조되었는데, 복합 지정 지역 특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설사를 양성하고 심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브랜드 활용 방안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지역 농산물에 부착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세계유산도시 고창” 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객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지역 해설사의 지식을 기록화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그룹 5

주민 참여와 브랜드 전략 5조는 주민을 국제보호지역 관리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관광 효과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가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브랜드 전략에서는 보호지역의 독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설악산의 산양 서식지 탐방과 무안 갯벌에서의 전통 어업 체험이 예로 들렸다. 지자체는 프로그램 설계와 홍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접근성 개선과 교육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책임감과 참여 의식을 높이고, 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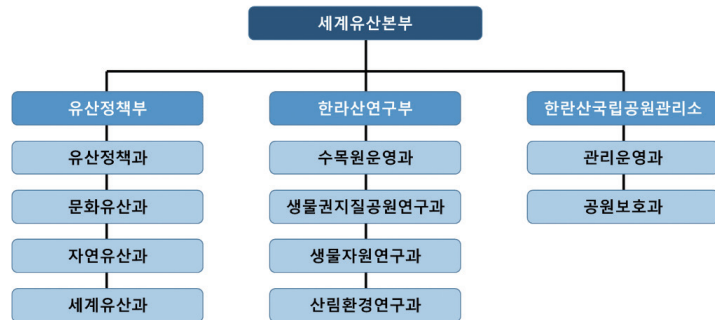
2024. 11. 20. (수)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선흘리 동백동산습지(먼물각)

제주 MIDA에 대한 제주 세계유산본부의 역할

기진석
제주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

제주 국제보호지역(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현황과 제주 세계유산본부의 조직 구성 및 역할을 파악하였다.(람사르습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제주도의 생성과정과 지질지형, 생태계, 동식물 등을 파악했다. 특히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동굴을 재현한 디오라마 공간을 통해 제주도 용암동굴의 생성과정과 구조, 생성물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선흘리 주민활동에 대한 동백동산습지센터 역할

김호선
동백동산습지센터 센터장

김호선 센터장과 함께 동백동산습지 서쪽입구에서 먼물깎 습지(약1km)까지 걸으면서 동백동산습지 현황과 선흘리 주민활동 사례를 청취했다. 주민들은 선흘리의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을 보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환경규제 속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왔다. 동백동산습지센터는 주민들의 협동과 지지를 얻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참여 독려 활동 등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2024. 11. 21. (목) 오조리 연안습지

오조리 연안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와 철새 탐조프로그램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고기봉
오조리 이장

2023년 12월, 제주도 최초로 철새보호지역과 연안습지로 지정된 오조리를 둘러보면서 연안습지 지정에 참여한 주민 활동을 파악했다. 오조리는 해안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한 주민감시단, 연안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연안습지를 둘러보며 오조리 마을의 유래와 생태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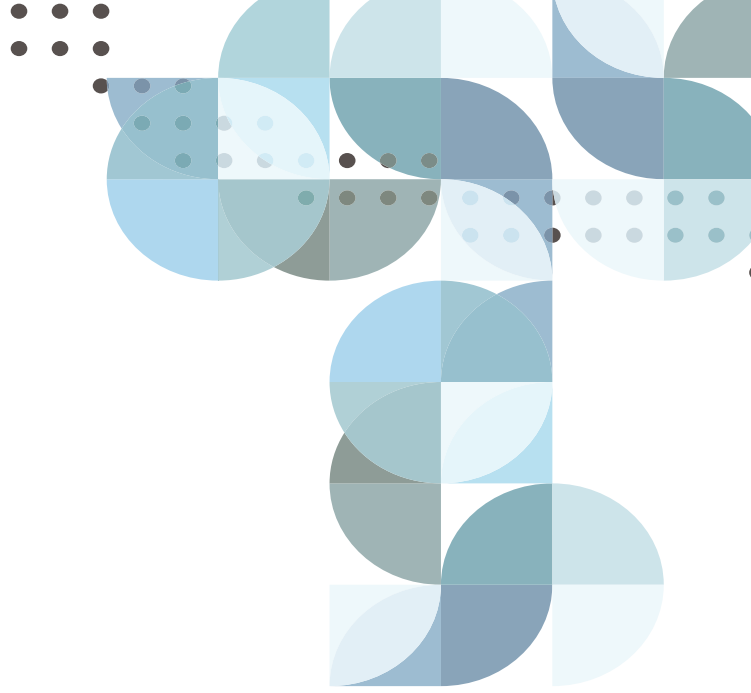


오조리 연안습지 철새 탐조프로그램 및 '조수웅덩이'

임형묵
김이와바당 대표

다양한 조개류와 갯벌 생물이 서식하는 오조리 연안습지와 이곳을 방문하는 겨울 철새를 탐조했다. 또한 한국작품 최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해양영화제(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에 초청된 '조수웅덩이' 환경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며 제주도 해양생태계와 생물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담은 이야기



워크숍 첫날, 활기찬 시작. 전체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자체별 홍보물 전시 부스에서 참가자들이 각 지역의 매력을 탐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빗속에서도 동백동산을 탐방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남겼다.



김호선 동백동산습지센터장의 열정적인 설명에 참가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오조리 연안습지 탐방에 앞서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오조리 연안습지 탐방 중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있다.



오조리 연안습지를 둘러보며 오조리 마을의 유래와 독특한 생태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오조리 연안습지를 방문하는 겨울 철새들을 탐조하고 있다.

함께 그리는 국제보호지역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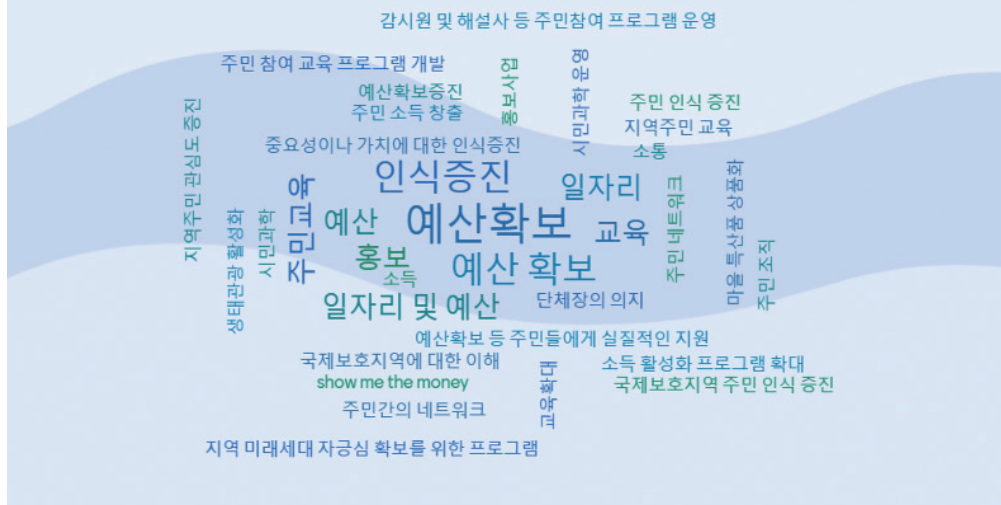
- 참여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의 장

국제보호지역 주민참여

- 우리 지역은 주민참여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 국제보호지역에서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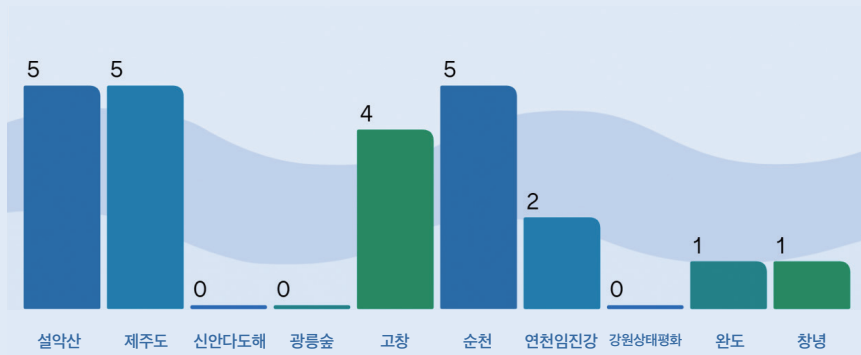


• 세계유산이라 하면 떠오르는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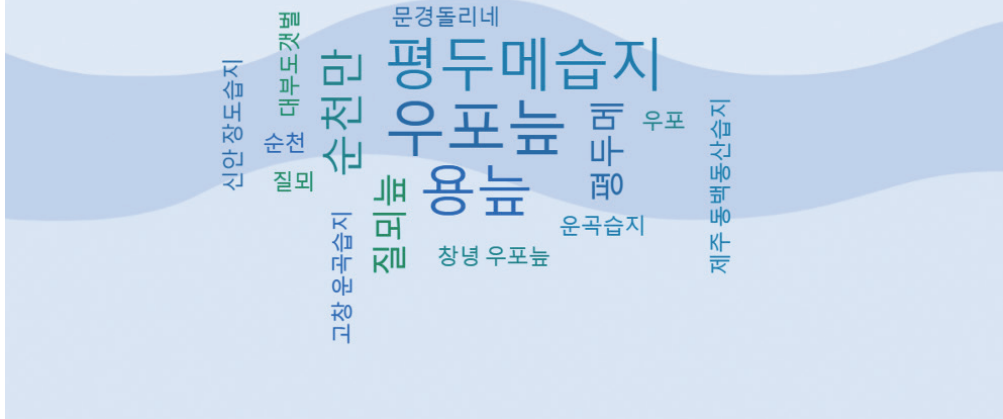
제주도	제주도	갯벌	창덕궁	경주
마추픽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갯벌
유네스코	유네스코	스톤헨지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고인돌	사도광산	하롱베이

• 생물권보존지역 중 가본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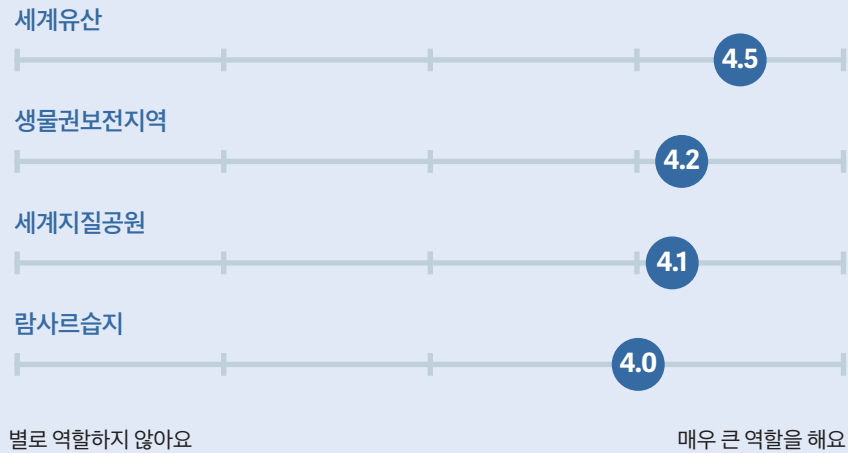
<중복선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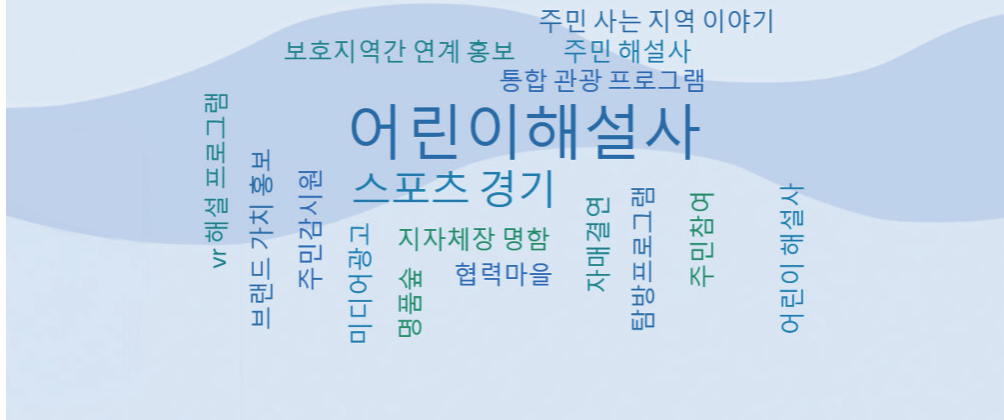
• 람사르습지 중 가보거나 아는 곳은?



• 국제보호지역 인지도 확보에 홍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나요?



• 국제보호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홍보방안 중 인상적이거나 도입하고 싶은 것은?



• 자신의 국제보호지역(지정지역)을 한마디로 홍보한다면?

군계일학 | 동아시아 철새 휴게소 | 왕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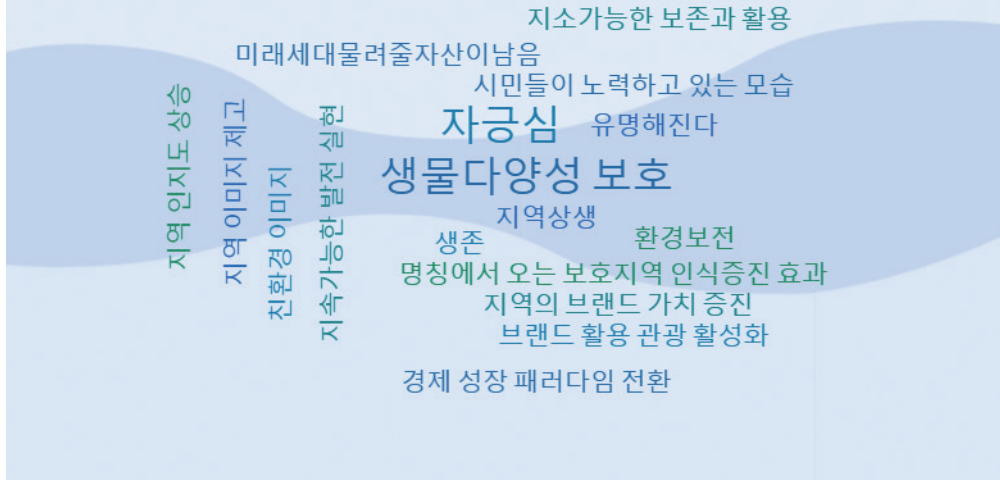
다양한 화산을 보유한 곳 | 국제보호지역을 잘 활용하면 지역이 살아날 수도 있다

사람과 함께하는 보호지역 | 도심 속 보호지역

화산이 만들고 시간이 조각한 주왕산 | 도심권 보호지역

인간과 자연의 공존 | 자연기반 글로벌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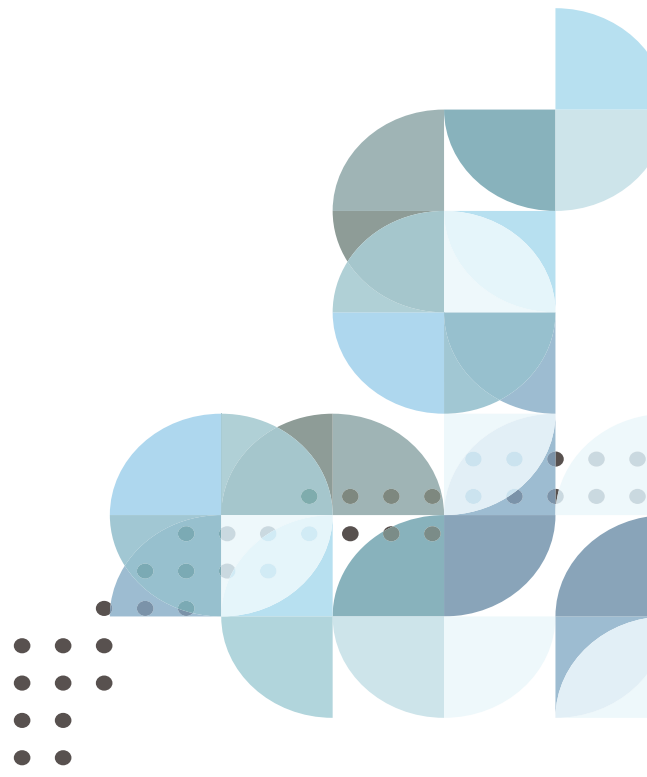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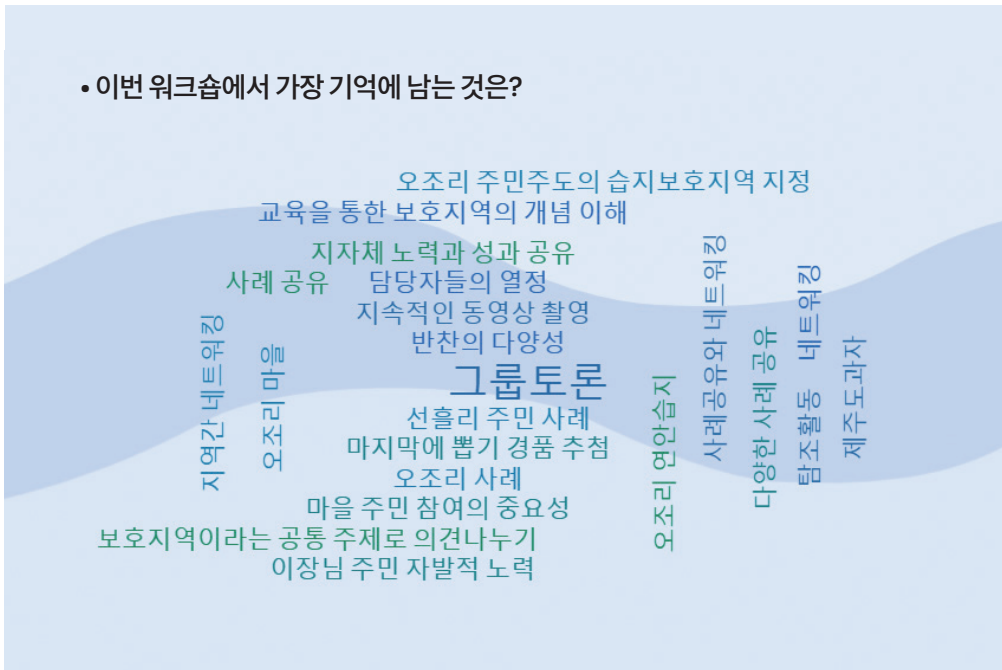
•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아질까요?



• 워크숍 마치고 돌아가면 당장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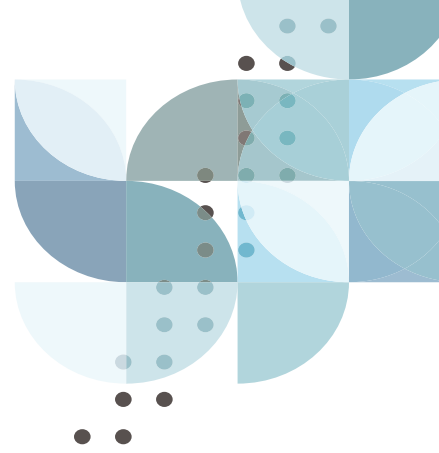
- 부서에 타지역 사례 공유 |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고민
- 사례, 아이디어 조직 내 전파 |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고민
- 타 보호지역과 연계 협력 | 네트워크 방법 강구 | 지역주민 협력 방안
- 성과 공유 |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꼭 오시라고 말하기
- 지역 축제 등 연계를 통한 보호지역 홍보 방안 강구 | 다음 워크숍 홍보

•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참가자 설문조사





본 워크숍의 효과성과 향후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참가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5명의 참가자 중 2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워크숍의 전반적인 효과성

• 주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참가자 대부분은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이 국제 보호지역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연자 및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과 세션 구성의 적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 현장 방문의 효과

워크숍 기간 중 진행된 현장 방문은 참가자들의 국제 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관련 피드백

• 장소 및 시설

행사 장소와 시설, 숙소, 식사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기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운영 만족도

그룹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으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다.

• 유익했던 활동

설문 결과, 참가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고 유익했던 활동으로 현장 방문을 꼽았다. 사례 발표와 그룹 토론을 통해 공유된 다양한 경험과 정보도 매우 유익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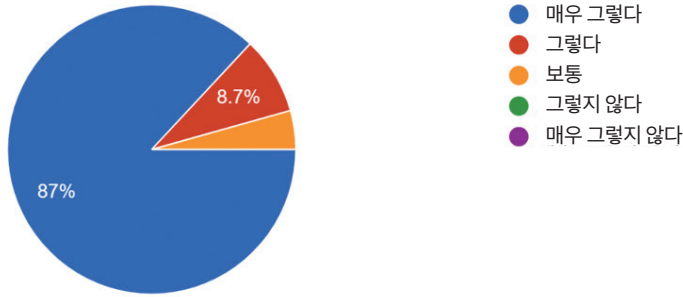
• 차기 워크숍에 대한 제안

차기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제안으로는 숙소와 식사 환경의 개선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실무자 중심의 심화된 의견 교환과 토론 세션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다음 워크숍의 주제로 지역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및 사례, 해설사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하며, 제주도를 넘어 다른 다중 지정 지역에서도 워크숍이 운영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국제보호지역별 분임 토론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폭 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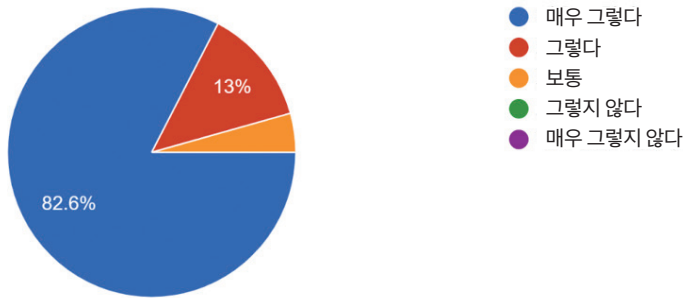
결론 및 향후 계획

설문조사 결과, 본 워크숍은 국제보호지역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운영 환경과 실무자 중심의 논의 강화 필요성 등 일부 개선 사항도 도출되었다. 이에 향후 워크숍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제안된 주제와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발전된 워크숍을 기획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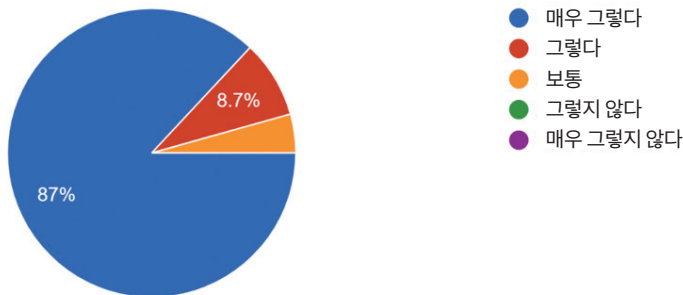
•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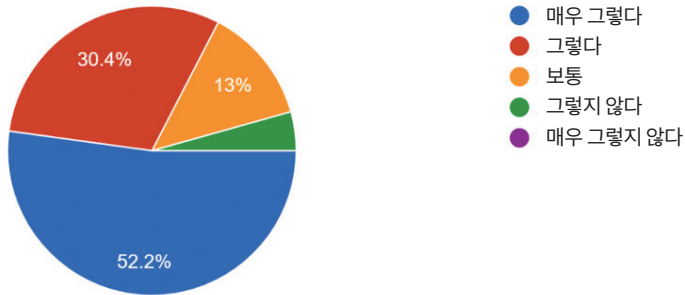
• 워크숍의 강연자 및 퍼실리테이터는 적절하게 선정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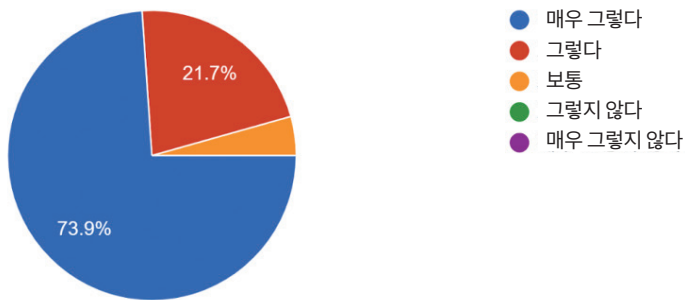
• 워크숍 기간 중 현장 방문 일정과 활동은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에 도움이 되었나요?



• 행사 장소와 시설(숙소, 식사 등)은 만족스러웠나요?



•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의 전반적인 운영에 만족하셨습니까?



•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유익했던 활동이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교육을 통한 국제보호지역 개념 이해
- 오소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 현장방문
- 맛있는 식사와 현장답사
- 사례공유, 주민참여 사례
- 오소리 현장답사
- 현장답사. 오소리답사
- 조별토론을 통한 타 지역 사례 공유
- 보호지역간 사례공유와 우수사례 답사
- 타기관 사례 공유
- 기관, 지자체 담당자 네트워크와 정보공유
- 탐조활동, 다른 보호지역 사례공유
- 동백마을 방문
- 사례발표 도움
- 탐조 프로그램
- 오소리 습지 및 동백동산습지 탐방
- 청송군등 사례발표와 세계유산센터방문
- 각 보호지역 관리자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 공유
- 제주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호지역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
- 현장 답사
- 조원들과의 사례공유와 의견교환 및 실제 현장에서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유익하였음

• 다음 워크숍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보호지역 유형에 따른 공유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 사전안내, 현장탐방 시 버스에 담당자들 탑승 및 안내 필요
- 의견없음
- 현장답사-미리 예약을 해서 거문오름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으면 좋았을거 같아요
- 3일차 저녁 식사(와인 등)는 메뉴나 장소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 1인 1실 숙소
- 폭 넓은 사례
- 그룹토론의 강화 및 결과물 도출
- 저녁 식사장소가 참여자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 참여자들간 자유로운 토의시간
- 지정사례지 현장방문 확대
- 숙박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 개선
- 숙소 시내 인접지역으로
- 유산센터 가는길에 검은오름 탐방까지 가는줄 알았는데 못가서 아쉬웠어요
- 너무 힘든 일정
- 국내 보호지역 간 상호 협력 등을 위한 운영자들의 친분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3명이 쓰기에는 방이 다소 좁았음
-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내용 이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사전자료를 통한 교육과 워크숍에는 실무자 중심으로 의견교환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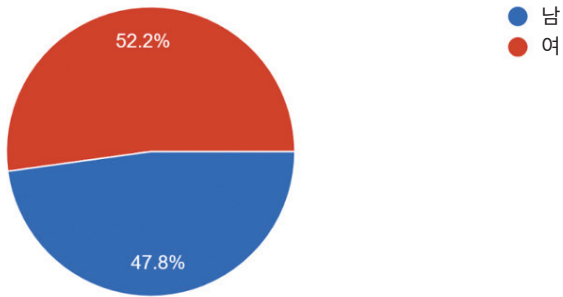
• 국제보호지역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해 다음 워크숍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국제보호지역 지정 이후 관리방안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논의
- 국내외 네트워킹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해당 주제를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 보호지역 활용 우수사례
- 민간 부문과 합동 워크숍
- 해외 사례 참가 필요
- 국제보호지역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 우수사례만이 아닌 각 보호지역 간 문제점 보완 사항 공유 및 해결
- 이상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방안 토론,마인드맵
- 공통 참여 업무 제의(현장 매칭)
- 지역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및 사례
- 다중이용 숙박시설 보다는 도심 숙박시설 개선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 위주 진행 개선 필요(세계자연유산 현장체험 등)
- 국제보호지역 관리 현장체험
- 규제에대한 주민반대는 현실적으로 개발에 따른 개별법에 따른 다양한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제도 개선과 영향평가서 통합협의제등 검토개선을 통해 규제완화 효과가 생기도록 국가 및 담당 기관별 협력이 필요합니다
-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국한된 생태 외에 국내외 동식물 관점에서 지역의 연관성과 생태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 졌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이는 다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를 지역간 협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설사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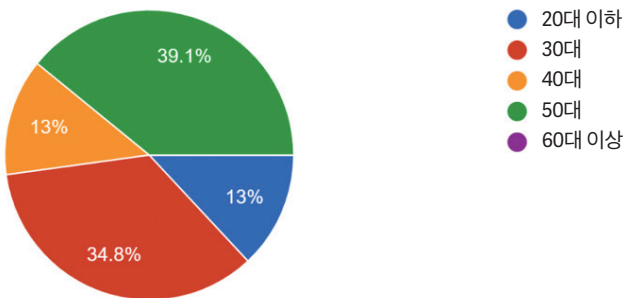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국제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에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과정) 또는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 제주도뿐 아니라 다른 보호지역 특히 다중지정지역에서 워크숍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보호지역 지정 실무
- 정기적인 교육과정 진행
- 담당자 역량강화 및 다른나라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
- 경품추첨
- 기관, 지자체 매칭 프로그램 운영
- 현장 방문하여 각 보호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과 주민 협력방안 코칭
- 워크숍
-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하여 참여율 향상 필요
- 국제보호지역별 분임 토론
- 보호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수집 분석해서 실무부서나 사업자들이 활용할수 있는 데이터 활용 관리규정 마련
-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GCIDA의 활동에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해외 보호지역 전문가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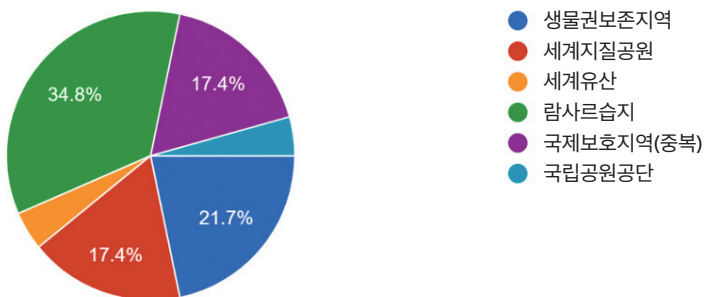
•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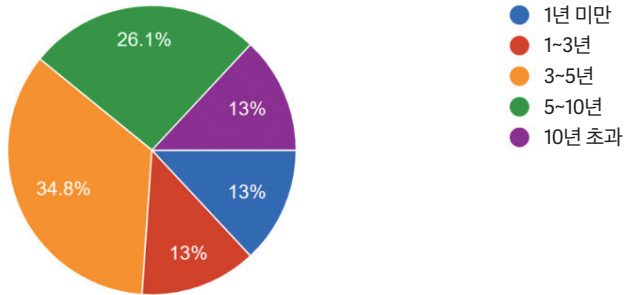
• 귀하의 연령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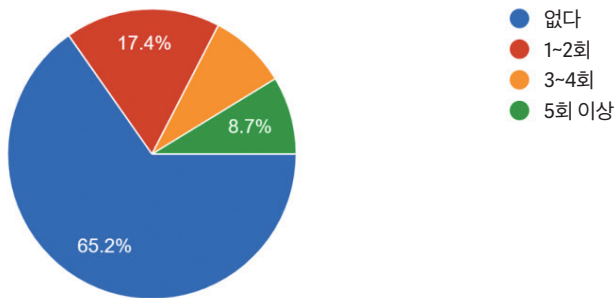
• 귀하의 소속 및 관련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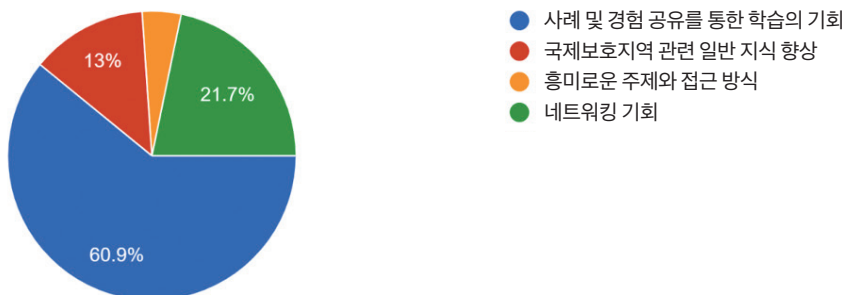
• 귀하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은?



• 과거 국제보호지역 관련 교육 참여 경험 횟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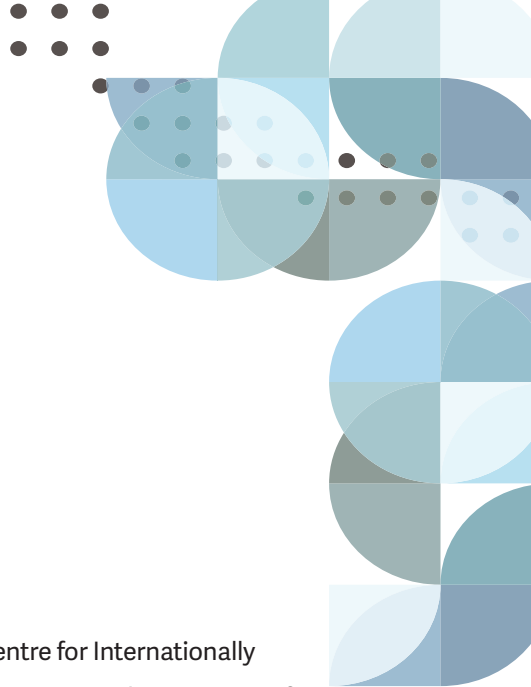
• 워크숍 참여 동기는?



Overview of Seminar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DAs), such as Biosphere Reserves, World Heritage Sites, and Global Geoparks, have a growing international role as places for experimentation i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objective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IDAs are of great interest to local governments in plans that seek to preserve nature while als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such as through ecological tourism. Accordingly, the total number of IDAs is rapidly increasing around the globe, as is the number of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MIDAs).
- In the meantime,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IDAs can fulfill their objectives and to strengthen capacities to manage these areas effectively. The aim of the 2024 thematic seminar was therefore to foster understanding regarding IDAs, provide a platform for the sharing of experiences and examples of good practice in managing IDAs, an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networks between managers of such areas.



Organizers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CIDA),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Sponsors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Jeju-do Province,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Dates

Tuesday 19 to Friday 22 November, 2024

Venue

Eco Village Youth Hostel in Dongbaeksdongsan Wetland, Seonheul-ri, Jeju City

Participants

Managers of IDAs in th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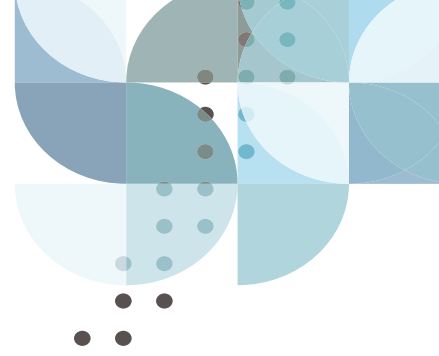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UNESCO Global Geoparks, and Ramsar Sites

Themes

- Major challenges in the management of IDAs
- Experiences and examples of good practice in the management of IDAs
- On-site visits to IDAs in Jeju and suggestions for management

Programme

2024. 11. 19 (TUE)	
17:30 ~ 18:00	Registration of participants
18:00 ~ 18:30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18:30 ~	Welcoming dinner
2024. 11. 20 (WED)	
~ 09:00	Breakfast
09:00 ~ 10:30	Opening cerem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speech, welcoming speech, group photo • Introduction to GCIDA • Understanding of IDAs • Policy Directions of Nationally Designated Areas
10:30 ~ 12:00	[Session1]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ID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amples of good practice in resident engagement (partnership, ecotourism, governance) • Group discussion
12:00 ~ 13:00	Lunch
13:00 ~ 18:00	On-site visit to IDAs in Jej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s of World Heritage Headquarters for MIDAs in Jeju • Roles of Dongbaekdongsan Wetland Centre for residents' activities in Seonheul-ri
18:00 ~ 20:00	Dinner
20:00 ~ 21:00	Discussion 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Biosphere Reserves (MAB Korean National Commission)



2024. 11. 21 (THU)	
~ 09:30	Breakfast
09:30 ~ 12:00	<p>[Session2] Branding and PR of ID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s for explanation, education, and use of branding on IDAs • Group discussion and preparation for presentation • Presentation of group discussion results
12:00 ~ 13:00	Lunch
13:00 ~ 18:00	<p>On-site visit to IDAs in Jej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re active implementation of ecotourism in Ojo-ri coastal wetlands • Observation programme for migratory birds' habitats in Ojo-ri coastal wetlands
18:00 ~ 20:00	Dinner
2024. 11. 22 (FRI)	
~ 09:30	Breakfast
09:30 ~ 11:30	<p>[Session 3] Management of ID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amples of new designation of Biosphere Reserves (MAB) in Changnyeong • Cases of re-certification of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 Status of management of Yeoncheon MIDAs
11:30 ~ 12:00	Closing ceremony, Participation in survey
12:00 ~ 13:30	Lunch
13:30 ~ 14:30	Move to Jeju Airport and disperse

Messages from the Hosts

Welcoming Message

Kyung-koo HAN
Secretary-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welcome to all of you who work so hard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UNESCO Global Geoparks, Ramsar Sites, and other national parks. Thank you for joining today's seminar.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firs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word "UNESCO"? Cultural heritage, maybe? UNESCO also conducts a wide range of activitie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so that no one is left behind in this regard, and is leader of international discourse concerning emerging issues such as the ethics related to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well as the promotion of efforts for world pea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However, the most familiar image of UNESCO to many people may be the UNESCO IDAs like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I think you will have frequently seen the logos of UNESCO and IDAs all across Jeju. This seminar today is all the more special for the involvement of th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CIDA), which is UNESCO category II center founded in Jeju Province to provide assistance and expertise to UNESCO.

GCIDA is the first UNESCO Category II Center in the field of IDAs. It was founded this year in line with a proposal by the Korean government to UNESCO to assist in effor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managers of IDA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helped pave the way for the center's work by holding seminars like today's through a three-year model project Jeju Province, dating back to 2019. So to finally be holding the seminar jointly with GCIDA this year is very meaningful. I wonder if anyone who participated in the 2019 seminar is also here today.

The province of Jeju home to a number of World Heritage Sites, a Biosphere Reserve, a UNESCO Global Geopark, and Ramsar Sites, in addition to some of the best natural resources in Korea. Jeju is a special place for its harmony between beautiful nature and humans. Gotjawal, a type of forest that is called "the forest of life," and the Suwolbong Peak Geo Trail, which follows the traces of volcanic activity, have become established as sites for ecotourism and environmental education led by residents. The experiences and activities of Jeju Province over the past two decades are an outstanding example of how conservation of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realized simultaneousl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DAs and the local community.

IDAs are a classroom in which people can work together to explore sol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y deal with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crises. Today's seminar is a precious gathering where all of you working at these sites can share your experiences and your wisdom, and discuss new directions for development. Just as the sea surrounding Jeju connects this land to other lands, y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will create increased synergy when connected.

Among you, there will be those who have a great deal of experience with IDAs and those who are not yet so familiar with them, having only recently become involved. Some of you may be very knowledgeable about your own fields, such as Ramsar Sites or UNESCO Global Geoparks, but not so well versed on other IDAs. This seminar aims to create synergies by bringing together this diversity of people with similar but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I hope the seminar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you to get fresh stimulation from others, share examples of good practice, and build and reinforce your own networks with each other.

Going forward, GCIDA will be working to further strengthen management capacities in IDAs, and we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them in this. Please join us in our efforts. Let us enjoy today and look forward to future meetings as we seek to enhance the management of IDAs. I hope these three days in Jeju will leave you all with remarkable and beautiful memories. Thank you!



Welcoming Message

Young-im SON
Resource
Conservation Director
Korea National Park
Service



Honored IDA managers and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all of you attending this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today. It is very meaningful to meet all of you who have taken responsibility for managing UNESCO Biosphere Reserves, UNESCO Global Geoparks, World Heritage Sites, and Ramsar Sites.

We will discuss here today not only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a single region but also the great significance of preserving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and maintai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ecosystems on a global scale. As emphasiz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DAs have a particularly key role to play in conserving biodiversit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a sustainable coexistence with local communities.

Each of you here today acts as a lighthouse that illuminates the future for IDAs. I hope that this seminar may serve as an opportunity to share your diverse experiences and knowledge and so improve your capabilities and fire your passion as managers of IDAs.

Jeju Province, where this event is being held, is a special place simultaneously home to four types of IDA, a UNESCO Biosphere Reserve, a UNESCO Global Geoparks, World Heritage Sites, and Ramsar Sites. I hope you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explore for yourselves the beautiful nature and unique ecosystems of this place and can find time to experience for yourselves the heritage found in Jeju. And I hope such experiences will provide new inspiration for your activities going forward.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worked so hard to prepare for this seminar, and to express my desire to continue to work with you all in making a better future. Thank you!



Session Presentations

Presentation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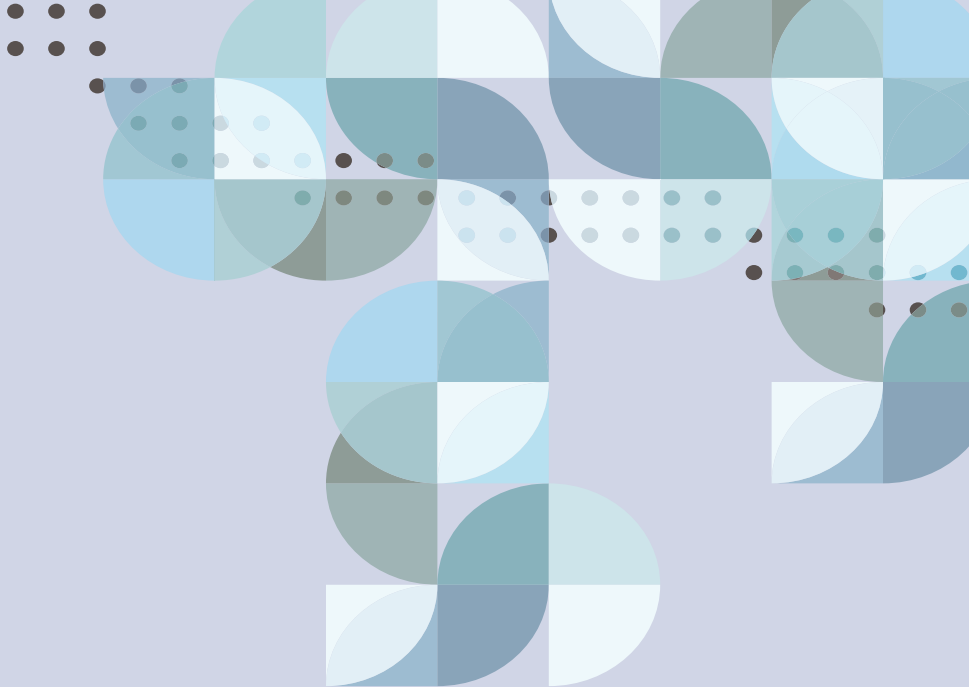
You can download the presentation materials for sessions and group discussions from the [QR code](#) below.



Other Data and Materials from the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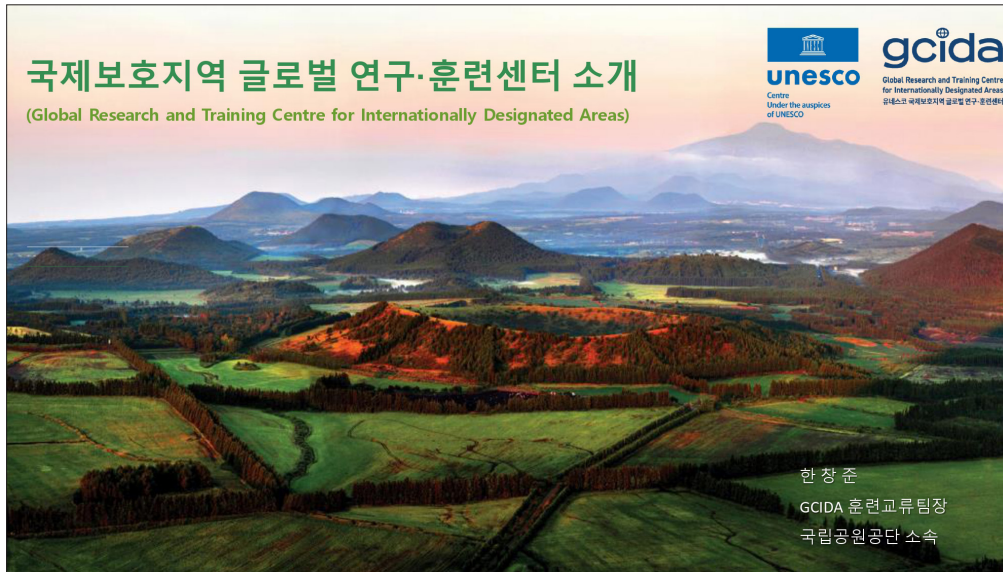
You can download other data and materials from the event from the [QR code](#) below.





Introduction to GCIDA

Chang-joon HAN Team Manager GCIDA Training & Exchange Team



IDs and GCIDA

There are currently some 260,000 nationally designated areas around the world, accounting for 15.03 percent of the world's land area and 7.56 percent of the world's maritime area. According to the WDPA IUCN Category II, there are 5,848 national parks.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Ds) relates to protected areas designated by an international agency o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UNESCO, IUCN, etc.), and IDs have globally important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 IDs are divided into the four types below.

- **World Heritage Sites:** These are re-examined every six years and have an emphasis on conservation of nature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examples of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include Hallasan Mountain and Getbol, Korean tidal flats.
- **Biosphere Reserves:** These are re-examined every 10 years, and aim to promote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Republic of Korea has 10 designated Biosphere Reserves, including Seoraksan Mountain, Jeju Island, and Sinan Dadohae Sea.

- **UNESCO Global Geoparks:** These are evaluated every four years, and aim to facilitate geological value preservation and geological tourism. There are five such parks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Mudeungsan Mountain and Hantangang River.
- **Ramsar Sites:** These are reviewed every six years. They aim to preserve the ecological value of wetlands, and cover both inland wetlands and coastal wetlands. The Republic of Korea has 26 Ramsar Sites, including Changnyeong Upo Wetland.

Nationally designated areas are protected areas designated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s of a country. There are currently around 1,727 such areas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unting for 17.5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a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nages the inland areas, whil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nages the offshore and coastal areas (1.8 percent).

In 2022, the 15th United Nations Biodiversity Conference, held in Montreal, Canada, adopted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which includes the “30X30 Target” that urges the designation of 30 percent of the Earth as designated areas.

Interest in MIDAs among International Trends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MIDAs) refer to a single region designated by multiple international agencies or under multiple conventions. Currently, there are 400 MIDAs around the globe.

There are additional issues in managing MIDAs because the various types of designations have different designation goals, effective periods, and management systems. For instance, while the designations of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are overseen by UNESCO, Ramsar Sites are dealt with under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Th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CIDA) was established as a UNESCO Category II Centre to help solve these problems and achieve integrated management of MIDAs. Though a similar center was proposed in China, as well, in the end Jeju Province was selected as the site for the center.

Examples of MIDAs in Korea: Jeju Province

Jeju is a prime example of the MIDAs in the Republic of Korea, being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in 2002, as a UNESCO Global Geopark in 2015, and having World Heritage Sites designated in 2007. In addition, Mulyeongari Oreum (2006), Muljangori Oreum (2008), 1100 Goji (2009), Dongbaekdongsan Wetland (2011), and Sumeunmulbaengdeui (2015) in Jeju have been designated as Ramsar Sites.

Introduction to GCIDA

The establishment of GCIDA was proposed following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for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IDAs,” at the 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 held in Jeju in 2012. The establishment of this UNESCO Category II Centre was later officially discussed in 2016, and GCIDA was established in Jeju in 2024 following the approval of the State Council in 2023.

GCIDA was established as an incorporated foundation, and is currently going through a procedure to be converted into a special corporation through a revision to South Korea’s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1-3). Unlike Category I Centres, which receive budgetary support and human resources directly from the UNESCO Headquarters, GCIDA is a Category II Centre, meaning it does not receive direct support from UNESCO. It does, however, receive indirect support through advice from experts.

GCIDA is located on the 2nd floor of the ObaekJanggun (500 Generals) Gallery at Jeju Stone Park, and currently has 10 staff members. Its operations are expected to settle and develop further once the director of the center takes up their position shortly. The center’s budget is around KRW 1.2 billion a year. It is drawn from subsidie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Jeju Province authorities, and is used for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Operating Strategy

GCIDA’s goal is to strengthen global capac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DAs, with three key lines of work: 1)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s for IDAs, 2) construction of training platforms for experts, and 3) strengthening networks among IDA stakehol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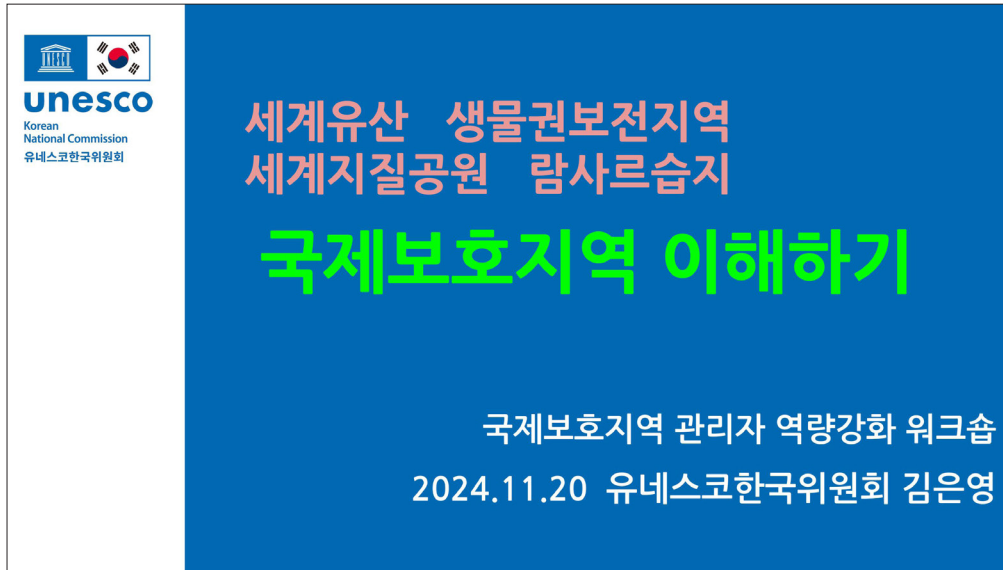
- **R&D:** Undertaking research on policies and financing for MIDAs, development of management models for MIDAs, etc.
- **Education & training:** Educating managers and stakeholders of IDAs, development of diploma courses and international certified qualification programmes, etc.
- **Strengthening networks:** Strengthening partnerships between IDAs, forming networks among trainees and other stakeholders, spreading knowledge examples of good practice, etc.

Using this approach, GCIDA aims to support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IDAs, and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e optim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DAs through various activities.

Understanding of IDAs

Eun-young KIM

Director of the UNESCO Agenda Policy Centr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is session focused on the particular features and value of the various types of IDAs (Biosphere Reserves, World Heritage Sites, UNESCO Global Geoparks, and Ramsar Site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history and roles of IDAs, their operations and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from local residents. Particular examples of management of IDAs were introduced, together with plans for how to promote harmony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UNESCO and Its Activities

UNESCO is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and was founded after World War II to promote world peace through the fields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t was founded with the mission to recover the world order destroyed by war, maintaining peace and strengthening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UNESCO promotes various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UNESCO is making endeavours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mprove sustainability for humankind.

Advent and Development of IDAs

The concept of IDAs was developed to preserve biodiversity and ecosystems. IDAs began with the foundation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in 1872. Later,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 to nature worsened, discussions arose regarding the need to protect nature and the environment on an international level. The Ramsar Convention was concluded in 1971, and UNESCO's MAB programme was established in the same yea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as adopted in 1972, while Global Geoparks became an official UNESCO project in 2015. These various forms of IDAs aim to promote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as well as the conservation of nature.

Introduction to IDAs

IDAs include Biosphere Reserves, World Heritage Sit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They also include Ramsar Sites, though these are not designated by UNESCO, but by states under the Ramsar Convention.

Biosphere Reserves aim to promote coexistence between nature and humans, and are oriented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simple preservation. As well as a Core Zone, where the focus is on protection, Biosphere Reserves also incorporate a Buffer Zone and a Cooperation Zone to promote harmony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World Heritage Sites are a system for protecting places with outstanding universal cultural or natural value. There are 10 criteria under which a site may be designated. Designation of a site as a natural World Heritage site requires the satisfaction of one or more criteria concerning scenery, geology, ecology, and biodiversity. I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site is not adequately maintained, the site may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Danger or its designation may be canceled.

UNESCO Global Geopark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of these sites emphasizes preservation of and education on the geological heritage and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The designations are managed through a strict re-certification system with on-site inspections.

Ramsar Sites are designated under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known as the Ramsar Convention). They include various types of wetlands, including coastal wetlands, inland wetlands, and artificial wetlands. At Ramsar Sites, there is a particular emphasis on efforts to prevent, stop and reverse the degradation of

wetlands and use them wisely through programmes that focus on communication, capacity building,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CEPA).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within MIDAs

The term MIDA refers to an area that has been designated under more than one of the systems for IDAs. This is the result of recognizing different aspects of the value of a region. Jeju is a prime example, with multiple designations, as a Biosphere Reserve, World Heritage Site, UNESCO Global Geopark, and Ramsar Site. It is important in such cases to manage the various protection purposes of the different designations in an integrated manner and understand the key elements in promoting sustainability of the sites, such as promotional activities. Specifically,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key to managing the IDAs and securing sustainability, meaning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are required in order for residents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region and voluntarily participate in activities to preserve, manage and develop that value.

Future of IDAs

IDAs have a growing role to pla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beyond the preservation of nature, and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nd cultur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management of these areas, strengthen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introduce customized policies fitting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each such area. UNESCO will therefore continue its efforts to develop IDAs as spaces to create a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so that biodiversity and ecosystems can be preserv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hieved.

Policy Directions for Nationally Designated Areas

Hak-young HEO Senior Researcher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is session not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working-level staff in nationally designated areas understand the relevant policy directions for their IDAs, so that they can align their efforts appropriately. The session therefore gave an overview of the policy directions for South Korea's nationally designated areas and discussed how to connect these to global goals.

Policy Directions for Nationally Designated Areas: Concept and Practice

IDAs play the key role in preserv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s on Earth. IDAs are geographically clearly defined spaces, and they aim to preserve nature in the long term through legal and practical means and by maintaining ecosystem services and cultural values.

However, when the designation of IDAs is not closely connected with the policy directions of a nation, effective preservation may become difficul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olicy directions for designated areas on a national level and to associate them with global goals. For instance, the use of the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

approach facilitates the practical recognition of areas outside of designated protected areas that are nonetheless contributing effectively to biodiversity and ecosystem preserv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this concept, in the expectation that this extension to conventional regulatory policies will encourage greater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Global Goals and Processes to Achieve Them

A greater focus on global conservation goals appeared in earnest after the Rio Summit in 1992. In the 1990s, the initial goal was set to protect 10 percent of inland regions, and in 2010, the Aichi-11 Target expanded this to protection of 17 percent of inland areas and 10 percent of maritime areas.

In 2021, a new “30X30 Target” was set, aiming for the preservation of 30 percent of inland regions, inland waters, coastal, and offshore regions by 2030. The goals do not just aim to secure areas but also to effectively manag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nd to respect the rights of native and local communities in the process.

Rights Conservation includes the concept of guaranteeing broad rights in preserv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s well as protection of appropriate areas (important areas, representative ecosystems, etc.). The OECM concept aims to encourage conservation approaches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rom conventional regulatory policies, along with specific policies for designated areas.

Policies for Designated Area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ystem for designated area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based on the environmental right specified by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live in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and the duty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etc., were all enacted on the basis of this stipulation in the Constitution. This legal basis provides the framework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inland and maritime ecosystem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ly designated areas.

In the 1960s,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was conducted based on the Forest Act, the Cultural Asset Protection Act, and the Park Management Act. In the 1980s, the designated areas management system was more systematically developed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Recently, other specific laws have been enacted, and various types of designated areas have been additionally

specified, thereby expanding the range.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esignation of such areas increases the regulatory burden on local residents and enterprises, and that multiple designations on some areas have led to social conflict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find a balance between conventional policy with an emphasis on regulation and responses to this, to promote coopera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by local communities and enterprises in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designated areas and develop a society that lives in harmony with nature.

Specifically, care is being taken so that designation of areas is not seen simply as an exercise of public power. The aim is to simultaneously achieve the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development. In this context, GCIDA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fair management and jurisdiction of the Designated Areas and the support for harmonious operation of MIDAs.

Strategy and Challenges for 2030

There are medium- to long-term goals and relevant policies for each type of designated area,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2030 Nationally Designated Areas Expansion Roadmap” reflecting the global goals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long with the existing governmental plans. The roadmap aims to identify and expand a variety of governance measures and OECM with a focus on the awareness of members of society regarding the necessity of participation going beyond the government’s lea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strategies for expanding designated areas and OECM areas to 30 perc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inland and offshore areas and for increasing quality of management of these areas.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set the following goals:

- **Expansion of designated areas and OECM:** Strengthen the conservation of regions important for biodiversity through the identification and expansion of designated areas and areas covered by OECM.
-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s for designated areas and OECM areas:** Strengthen the qualitative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and build a participatory management system.
- **Strengthening of basis for coexistence in local communities:** Strengthen measures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ith residents in designated areas and expand benefits for the local communities near designated areas and OECM areas.

OECM: a New Direction for Conservation

OECM is a new concept that encompasses cultural, societal, and economic value as well as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This promotes increas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enterprises, relieves the regulatory burden caused by designation, conserves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creating economic and cultural value.

To implement the OECM concep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a “nature coexistence (30X30) partnership” suppor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led management of such areas, prioritizing involvement by individual citizens and enterprises. A dedicated platform for this partnership will be launched officially at the end of December 2024, to facilitate and publicize activities that promote th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addition, a matching service will be provided to identify needs for rehabilitation of damaged areas, rapidly share updated information, and allow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these activities.

The platform is expected to help strengt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hile promo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rnessing corporate involvement and the growth of ESG management to raise awareness of the need to coexist with nature and build a sustainable future.

Building a Sustainable Culture of Peaceful Coexistence with Nature

Policies for nationally designated area should not aim simply to expand such areas; they requir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eserv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nd simultaneously enhance quality of life for humans. To this end, countries need to focus on organically associating global goals with their national policies, encouraging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forming a culture of coexistence with nature over the long ter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evaluation and reassessment of the current nationally designated areas systems and OECM measures, to ensure that they are appropriately aligned to achieve global goals for healthy liv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well-preserved nature. The government needs to work with enterprises and local commun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of coexistence with nature, and maintain efforts to design a sustainable future based on this.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Governance of Designated Areas

Seung-oh SEO Centre Director East Asia Ramsar Sites Centre

Ramsar Regional Center East Asia

지역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 보호지역 관리의 관점에서 -

www.rcea.org / suhseungoh@gmail.com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IDAs,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also being considered the key element in realizing the highest level of governance. Local residents are stakeholders being directly affected by the policies and management of the IDAs, so if their opinions and participation are excluded, it is har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related policies.

Changes in the Concept of Governance

Governance is a structural system for management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experts, private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collaborate to discuss issues, set directions, and execute policies. Its meaning has changed over time from government-led methods of the past to an emphasis 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various fields.

Concept of CEPA

CEPA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wareness) has recentl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s an effective, integrated approach for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management of IDAs. It includes four key elements:

- **Communication:** A process for delivering information that is not mono-directional, but bi-directional, interactive communication, to build understanding and consensus with local residents. This is important in order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residents to develop a deep understanding of the designated area and want to get involved with it, as well as to simply provide information.
- **Education:** A process to deliver knowledge to residents regarding management of the IDAs and to strengthen their capacities to become involved in this management. This education helps residents learn the basic knowledge needed to manage the IDAs through school educational programmes and education sessions for local residents.
- **Participation:**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general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such as establishment, execution, and evaluation of management plans. This is the highest stage of CEPA, requiring clear understanding of relevant procedures and regulations. This participation by residents increases management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 **Awareness:** The initial stage of helping residents recognize and become interested in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of the Designated Areas, using campaigns, quizzes, etc. to build a positive image. For instance, such activities as "Kia Tigers Uniform Day" uses something familiar to residents to build a positive image for the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CEPA proposes an integrated approach where all elements are organically connected to encourage residents' participation, not independently working on their own. Such a method helps residents play a leading role in the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which in turn increases the sustainability of long-term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Engaging Residents in the Process of Management of IDAs

Management of wetlands comprises four steps: monitoring,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lans, execution of management plans, and evaluation. Monitoring involves the observation of positive or negative changes in the designated area, analyzes causes, and collects data through citizen-science. However, currently, data from citizen-science is limited due to insufficient expertise and a lack of management structures.

Management plans should reflect residents' opinions, but currently, resident participation is limited because of service-oriented methods of planning, with special emphasis on services in Korea. Residents do have an opportunity to directly participate in management activit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plans, such as through the management of habitats and creating profits. Such activities create a sense of ownership in residents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interest in management of the areas.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plans must be structured to allow experts to evaluate ecological changes, while allowing residents to assess substantial changes in their living environments. The evaluation process must also ensure that the opinions of residents are reflected in the next management plans.

Example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je Yongneup Marsh Management Commission is a case where the commission chairperson is a local resident who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setting of policies and management of the designated area. The residents developed their sense of ownership for the management of the area in setting policies for Yongneup Marsh and by getting involved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Jeju Jocheon-eup Management Commission is another example,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polici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local designated area, and allow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areas subjectively.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hooded cranes in Suncheon represent a case where local residents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through the offer of short-term financial benefits in exchange for participation in activities such as the harvesting of reeds, feeding the hooded cranes, and looking after rest areas. Such activities invoked a sense of responsibility within residents, while contributing to increased sustainability in the management of the designated area.

Issues and Suggested Solutions

Currently, there are insufficient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in South Korea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valuating management plans. Management plans are mainly dependent on outsourcing, and their details are not sufficiently explained to residents, leading to low understanding, in general. This structural problem makes it hard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in the execution and evaluation of management plans.

To improve the situ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increased through an official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a local management commission. There must be ongoing

assistance to help resid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and strengthen their capacities to get involved, and clear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granted to residents. In addition, a flexible management structure should be put in place so that experts can supplement data obtained through citizen-science for use in forming policies, thereby increasing the motivation of residents to participate.

Residents' full participation represents the highest level of involvement in governance of designated areas, and requires a long-term approach. Clear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given to local residents, and a struc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ir participation such that residents can lead and take ownership of managing designated areas. Such efforts will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the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and contribute to harmony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

Example of Good Practic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IDAs

Kyung-oh MOON

Former Secretary-General Group for the Promotion of the Inscription of Korean Tidal Flats as World Heritage



Example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IDAs: Getbol, Korean Tidal Flats

The Republic of Korea's Tidal Flats are another example of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MIDAs), as they include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Ramsar Sit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The five tidal flat regions of Seocheon, Gochang, Sinan, Boseong, and Suncheon are working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ve management with special emphasis on local residents as well as ecological values. The tidal flat regions ar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Sites and key areas of Biosphere Reserves, and activities are performed with emphasis on conservation. The inland and offshore regions around the tidal flats are designated as buffer zones or cooperation zones to promote harmony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idal flats are areas where local residents live and work, and so residents are regarded as the key subjects in tidal flat management. These residents have maintained a coexistence with nature through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on use of these areas, and such expertis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asset in conservation activities. Therefore, building trust with residents and ensuring their willing participation are considered essential elements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Governance with Special Emphasis on Residents

- **Building trust with residents**

Despite the previous resistance from the residents, Heuksando Island succeeded in forming trust with them through truthful communication with village units, despite the furious objection of residents. The management authorities reflected the opinions of residents regarding policies and encouraged their participation by providing substantial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an indirect communication strategy through the mediation of NGOs and other civic groups was also effectively utilized.

- **Participation in monitoring and environment management**

Themes that residents might be interested in were selected for their later participation in monitoring activities. For instance, activities for exploring the amount and sustainability of clams collected on the tidal flats engaged the interest of residents to the point where residents could sense the importance of conservation activities.

- **Inclusion of reside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presentatives from the local resident community were included in the decision-making body to strengthen transparency and reflect the voices of residents in policies. To ensure a strengthened governance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ultative body for each region, electing the chairperson, discussing current issues of the region, and allowing residents to participate as executi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Challenges of Management of MIDA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MID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on-site management is important.

-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MIDAs are often managed by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because of local circumstances, but local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on-site management need to be

restructured as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They are a single area of natural heritage but management is divided into different departments to correspond to existing governmental departments. To ensure consistency of policies MIDAs should be managed by a single integrated department, such as “UNESCO.” For instance, Sinan has an integrated department called “World Heritage Department” that comprises seven teams to deal with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Ramsar Sites, and wetland IDAs.

- **Support for projects led by local resi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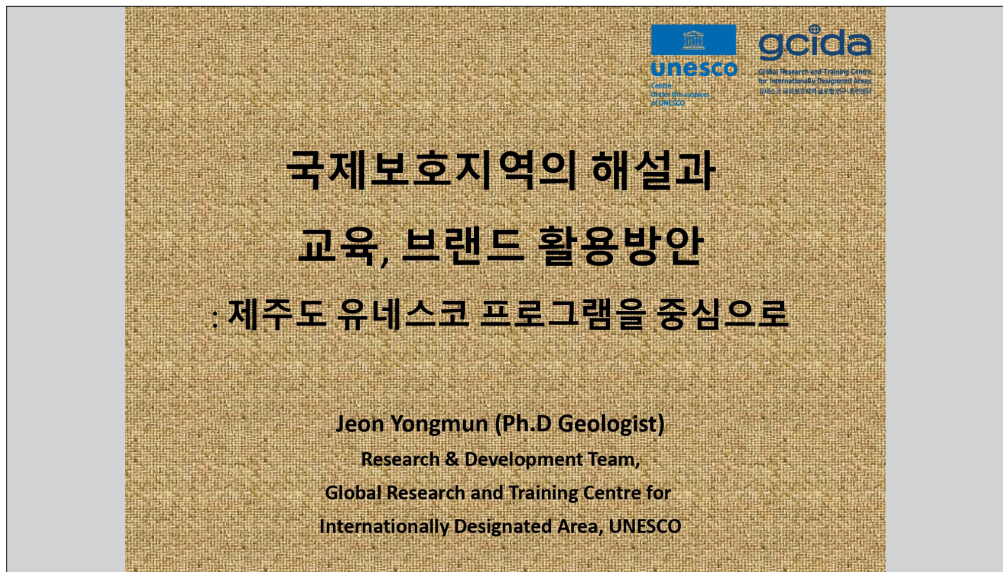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rojects led by local residents, connect them to budget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cure these projects’ stability and autonomy. Existing support programmes with relevance to tidal flat areas (e.g. support for y eco-tourism resorts, collection of maritime waste, etc.) can be used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substantial benefi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Branding

Tidal flats have the potential to attract support on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s an international brand. If an autonomous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s constructed, tidal flat areas could become a mode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e.

Plans for Explanation, Education, and Use of Branding in IDAs: Jeju's UNESCO

Yong-mun JEON Team Manager Research & Development Team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UNESCO



Jeju Province is a MIDA, with Biosphere Reserve, World Heritage, and UNESCO Global Geopark designations, as well as Ramsar sites, simultaneously realizing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Various case studies from Jeju Province show the potential of integrated use and branding of IDAs.

IDAs and the Role of GCIDA

There are around 400 MIDAs around the globe, and Jeju Province is a prime example. MIDAs are often managed by multipl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plans, which may result in problems of inefficiency. GCIDA was established to help solve such problems, with a focus on facilitating cooperation between IDAs and preparing integrated management plans, thereby

increasing efficiency. The case of Jeju shows the importance of such integrated management.

Biosphere Reserves in Jeju

To begin with, only some parts of Jeju's Hallasan Mountain were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but later, the Biosphere Reserve designation was expanded to cover the whole area of Jeju Province. Early on, residents resisted this because of concern over regulations. However, briefing sessions and campaigns aimed at local residents were conduct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economic benefits brought by Biosphere Reserves and the value of conservation, which convinced the local population to cooperate. A virtuous circle has been formed in which the agricultural products grown in the Biosphere Reserve (mushrooms, organic products, etc.) are sold with special branding, and the profits re-invested in conservation activities. Harye-ri Village operates ecological experience programmes including picking tangerines and exploring forests, which have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ntributed to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In addition, educational programmes related to Biosphere Reserves have been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elementary schools,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the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s of the Biosphere Reserve. Such UNESCO school programmes have increased students' pride for their local heritage and helped them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iosphere Reserves.

World Heritage Sites in Jeju

World Heritage Sites in Jeju comprise Hallasan Mountain, Seongsanilchulbong Peak, and Geomumoreum Lava Tubes. Various programmes have been operated around such sites. The World Heritage Festival provides visitors with special experiences by offering a chance to visit sections of volcanic lava caves that are not usually open to the public, as well as through other activities. Visitors can also enjoy visual content, such as popup books, which show Jeju's volcanoes and caves in an interesting three-dimensional manner. Cartoon contests showcasing the value of world heritage have also proved effective in engaging interest from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mes using portable VR equipment have provided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virtually explore and learn about World Heritage Sites. All of these programmes have been valuab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unique values of World Heritage Sites and connecting the region to the world.

UNESCO Global Geoparks in Jeju

UNESCO Global Geoparks started relatively later in Jeju, with special emphasis on branding

and PR. The GEO brand emphasizes the value of Geoparks by associating them with a variety of businesses, such as accommodations, restaurants, and cafes, contributing to increased awareness of Geoparks among both tourists and residents.

Geo Trail programmes are operated at major geological heritage sites, such as Suwolbong Peak, Sanbangsan Mountain, and Biyangdo Island, bringing together nature, history, and culture. These programmes have provided residents and tourists with uniqu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explore in person the values of conservation in UNESCO Global Geoparks. In addition, there is a Geoschool operated by Geoparks guides, the profits from which are re-invested in conservation activities, as well as ongoing education programmes for public servants and student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UNESCO Global Geoparks.

Cooperation and Future Challenges

The Biosphere Reserve, World Heritage, and UNESCO Global Geopark brands each play important roles in increasing the value of Jeju, but they are still operated separately. GCIDA is doing its best to integrate the three brands and to build a mor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furthe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Jeju. Jeju is an example of how UNESCO brands can be used to achiev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simultaneously, by organically connecting education, tourism, and experience programmes to make sustainable management of IDAs a reality based o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 an Open Space for Experiential Education

Dong-won CHOI Team Manager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 Office



Background and Status of Designation

The Hantangang River boasts unique geological feature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volcanic activity in the area. The river was certified as a National Geopark in 2015, and later designated as a UNESCO Global Geopark. The region is jointly managed by Pocheon City, Yeoncheon County, and Cheolwon County. Its total area is around 1,165 km², which is double the area of Seoul Metropolitan City. Its designation as a UNESCO Global Geopark was successfully renewed for another four years in 2023, reflecting both the geological importance of Hantangang River and its efforts for sustainable management.

Regional Features and Value

Hantangang River includes geological history connected to North Korea, and research and conservation efforts are being made with consider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Famous spots, such as the Bidulginang Falls, have been subject to concern regard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because of dam construction in the past, but they have been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to ensure their preservation. They have also become a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of collaborative efforts with local residents.

Major Programmes

Beyond preservation activities,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 also operates programmes that couple education with tourism. Programmes that involve both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help to create a virtuous circle that engages the local community and facilitates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 **Tour guide programme**

There are around 60 tour guides (local residents) on site who share ge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about Hantangang River. They help generate profits for the local community and increase the local pride of residents. Around 45,000 visitors have made use of the guide programme, which disseminates ge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through storytelling methods, while also using modern technology such as Virtual Reality equipment to increase educational effects.

-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mes**

Various experience activities are provided here, including the a Geotrail for families and meditation programmes. Since 2013, programmes have been developed to explore even regions not usually accessible to the public through support from the Korea Heritage Service. A training programme has been developed to provide training for staff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aid for by the relevant governments, thereby creating profits and contributing to the local economy. In addition, a Hantangang River Tour Youth Guide programme offers lectures aimed at teenagers to engage the younger generation.

-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mes**

The geopark also runs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mes with Japan, Greece, and other countries through the UNESCO Global Geoparks network. In 2023, 10 students were selected for field studies and exchanges with Japan, and such activities are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networks and branding for Hantangang River.

Programmes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our Guides and Increase Awareness of T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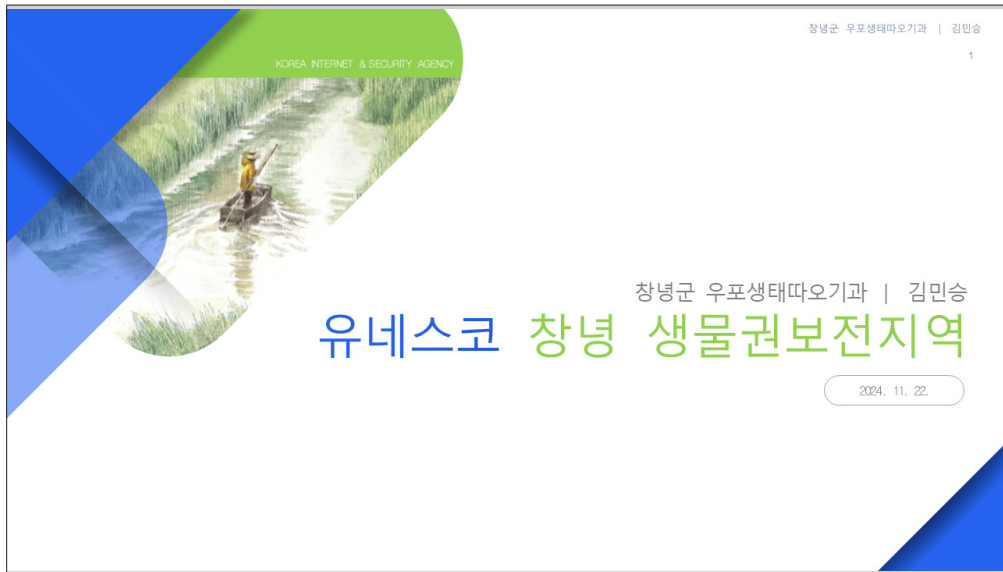
The Hantangang River tour guide programme has earned a high satisfaction rate from visitors, but knowledge about its existence is limited. According to a survey, around 70 percent of visitors who participated in a tour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experience, but those who had booked the tour before visiting the site accounted for only 25 percent of participants. To address this,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the tour, as well as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tour guid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 is oriented toward a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with a focus on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as well as on the conservation of the area's geological value. Through different programm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the brand value of Hantangang River is increasing, which is helping not only to conserve the area's natural heritage but als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Example of New Designation of a Biosphere Reserve (MAB): Changnyeong

Min-seung KIM Action Officer Upo Crested Ibis Department, Changnyeong County



In July 2024, Changnyeong County was designated by the UNESCO MAB-ICC as the 10th Biosphere Reserv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irst in the Gyeongsangdoregion. As with other Biosphere Reserves, Changnyeong aims to balan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emphasizing the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Biosphere Reserves

Biosphere Reserves are one of the three types of Designated Area (Biosphere Reserves, World Heritage Sites, UNESCO Global Geoparks) designated by UNESCO. They target inland, coastal, and offshore ecosystems, wher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s important, and constitute biogeographical regions. These regions aim at conserving and improving ecosystems, while making use of the various benefits from nature, and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local community.

Designation of a region as a Biosphere Reserve does not require compliance with additional legal regulations or restrictions in legal instruments other than existing domestic laws. However, Biosphere Reserv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as having strengthened regulations or restrictions on development because of their name. In fact, Biosphere Reserves fall under an institutional framework design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e simultaneously, with special emphasis on harmoniously realizing the potentially contradictory goal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iosphere Reserves are not simply meant to protect nature but act as model regions for improving interactions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As of November 2024, there are 759 Biosphere Reserves in 136 nations around the globe. In the Republic of Korea, a total of 10 areas have been designated as Biosphere Reserves to date, beginning with Seoraksan Mountain in 1982. Changnyeong Biosphere Reserve, designated in 2024, holds important significance as the first example in the Gyeongsangdo region.

Introduction to Changnyeong County

Changnyeong County is located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is known in Korea for the Bugok Hawaii hot spring resort and Upo Wetland. Upo Wetland is the largest natural wetland area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Ramsar Site.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education on this topic. Its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was sought in order to promot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ocal forest and agricultural ecosystems with the wetland ecosystems, with Upo Wetland lying at the center, to enable the sustainable coexistence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nature. This built on the selection of Changnyeong as a Ramsar Sites and expect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ourism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an increase in brand awareness of the area as a site for ecotourism.

Process for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The process for Changnyeong's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started in earnest with the preliminary application made for the area in cooperation with the Gyeongnam Environment Foundation in 2020. In 2021, the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ducted an on-site examin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application, and in 2023, the final application was submitted following various procedures, such as briefing sessions for the local residents and consent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process of designation required discussions not just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but also with residents, and systematic

promotional activities were undertaken to resolve misunderstandings among residents regarding, for instance, the status of Biosphere Reserves.

During the designation process, UNESCO agreed with the specification of Hwawangsan Mountain and Upo Wetland were set as Core Zones, but suggested that the borders of the Buffer Zone were not clear, and that protections were insufficient in some parts. Changnyeong County explained that there was a low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the eastern border areas, and put plans in place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s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cooperation with residents. Such endeavours led to the final designation approval from the UNESCO MAB-ICC in July 2024.

As already mentioned briefly, Changnyeong County experienced various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because of misunderstanding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term Biosphere Reserve. The biggest challenges included discussions with major government agencies.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the consent of various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was essential. Before submitting both the preliminary application and the principal application, it was necessary to arrange discussions and coordination these agencies, requiring a lot of efforts from Changnyeong County in terms of data preparation and communication.

Concerns and negative perceptions among local residents about the potential burden of the name Biosphere Reserve were another problem to surmount. Some residents raised concerns over a potential for reductions in large-scale development investments and land prices that might occur if the region was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To resolve such misunderstandings, Changnyeong County undertook an active promotional campaign to inform the public that the designation would not bring additional regulations or restrictions. Such endeavours played a key role in securing the trust of resident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Changnyeong County succeeded in its discussions with the major government agencies, and was able to resolve residents' concerns, and so was abl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to be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We hope this experience can serve as an example for other regions in preparing for their designation as Biosphere Reserves.

Introduction to Changnyeong Biosphere Reserve

Changnyeong Biosphere Reserve comprises Core Zones, Buffer Zones, and Cooperation Zones. The core zone includes Upo Wetland and Hwawangsan Mountain, with both being protected as regions with great biodiversity. The buffer zones include rivers and forests surrounding and protecting the core zones. The cooperation zones include residential areas and commercial complexes, and are oriented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oundaries of these zones

were established reflecting the ecological features and regional necessities of Changnyeong County.

Upo Wetland is an ecological repository with around 800 species of plants and around 200 species of migratory birds. It is an important habitat for various species, including the crested ibis, which is in danger of extinction. The crested ibis had been extinct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79, but following recovery efforts that began in 2008 through reintroduction of the species from China, 340 ibis are now resident here as of 2024. The crested ibis has bred successfully in Changnyeong since 2021, making the area a model for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ecosystems. This recovery and preservation of ecosystems has led to the creation of ecological tourism resource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Hwawangsan Mountain, the other element of the Biosphere Reserve's core area, was selected for its unique natural scenery and various types of forest resources. In the past, the mountain was a famous tourist spot in Changnyeong County with its Silver Grass Burning Festival and other events.

In addition to these core areas, Changnyeong County possesses abundant other cultural assets, such as Bugok Hot Springs, Gwanryongsa Buddhist Temple, and Gaya Tombs, which are World Heritage Sites, and is established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ecology and culture.

Changnyeong County plans to hold a special event to celebrate its designation by UNESCO as a Biosphere Reserve alongside local residents through a ceremony and music concert on December 2, 2024. The designation is evidence of how Changnyeong County can re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opera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beyond simple conservation, and going forward, Changnyeong County hopes to identify and share examples of good practice related to the operation of Biosphere Reserves, and expand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mple of Re-Certification of a UNESCO Global Geopark: Cheongsong

Seong-ok JOO Action Officer Department of Tourism Policy at Cheongsong County

2024. 11. 22.(금)

unesco
Global Geopark
세계지질공원

GLOBAL GEOPARKS NETWORK
REPUBLIC OF KOREAN GLOBAL GEOPARKS NETWORK
국가지질공원
NATIONAL GEOPARKS OF KOREA

2024년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사례**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지질공원팀
주성욱
geo616@korea.kr

청송세계지질공원
CHEONGSONG GEOPARK

Geological heritage has important value similar to that of conservation of ecosystems, but does not receive the same level of interest from the general public. Nonetheless, rocks possess unique geological features formed over millions to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Once damaged or destroyed, this value cannot be recovered, making efforts for conservation extremely important. This is why a variety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programmes exist to preserve geological heritage.

UNESCO Global Geoparks represent an international programme targeting the conservation of geological heritage,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heritage, and efforts to utilize it sustainably. The goals of the programme aim not only to preserve geological features but to use them to create various societal effects, such as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ies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value. To ensure that UNESCO Global Geoparks are being

operated successfully, regular evaluation and re-certification procedures are conducted.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has established a sustainable model by satisfying such management criteria. Cheongsong was first evaluated for designation as a UNESCO Global Geopark in 2016, and it was successfully designated in 2017. In 2022, Cheongsong received a Green Card following re-certification procedures, so maintaining its status as a UNESCO Global Geopark to the present day. In seeking to maintain this status, Cheongsong has made various effort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educ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promotion of tourism.

Importance and Examples of Conservation of Geological Heritage

Geological heritage contains the environmental and geological history of the Earth, going beyond the value of natural scenery. Geological heritage of acknowledged national importance may be designated as a National Geopark, while geological heritage recognized as being of global value may be designated as a UNESCO Global Geopark.

Cheongsong possesses various geological heritage features, such as the spectacular rocks of Danae on Juwangsang Mountain, Cheongsong Flower Stones (Cheongsong Gugwasang Yumunam Rock), and Sinseong-ri Dinosaur Footprints. These features are attractive scenery, but also hold enormous academic and educational value in terms of geological history, going beyond simple natural beauty.

In particular, Juwangsang Mountain attracts many tourists with its geology formed by the volcanic eruptions in the Mesozoic Era. The valleys, waterfalls, and caves developed by rocks formed by hardened volcanic ash have not only unique beauty as scenery but also contain valuable ge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geological heritage is a key tourism resource for the region, contributing to the local economy and knowledge.

Re-Certific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UNESCO Global Geoparks go through a re-certification process every four years, during which their operational sustainability and management are evaluated. The re-certification process starts with the submission of a summary report one year before, and in the year of re-certification, the Geopark management team prepares and submits its own evaluation report to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at, the general operations are checked through on-site examination, and either a Yellow Card or Green Card is granted, depending on the results. If the Geopark receives a Yellow Card, another re-evalu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wo years, and if the Geopark fails to pass the re-evaluation, then the status of UNESCO Global Geopark can be lost. On the other hand, if the park passes the re-evaluation, it is granted a Green Card.

Major items examined during the evaluation include how recommendations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Geopark, areas within the Geopark, education programmes being implemented, and programmes for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e genera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UNESCO Global Geopark. In particular, the re-certification process will pay attention to how any recommendations that were given to the Geopark in the process of the initial certification evaluation or previous re-certification are being implemented, as evidence of the sustainability and quality of the geopark's operation and management.

- **Implementation of previous recommendations**

To maintain the quality of UNESCO Global Geoparks, the re-evaluation will look at how any previous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Geopark have been or are being implemented. This may include recommendations such as the addition of English to tourist signs,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al capabilities, visibility of the Geopark or the improvement of Geopark infrastructure.

- **Zones**

Also evaluated are the clear setting of borders of Geoparks and the degree of visibility of these borders. For instance, evaluated items include whether the border of the Geopark is clearly set, whether appropriat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the visibility with logos and signboards for the Geopark, whether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Geopark have been put in place, and whether information on the Geopark is provided through various media. In addition, the evaluation will check what educational and tourism programmes are being operated to utilize the geological heritage.

- **Other heritage**

UNESCO Global Geoparks do not just preserve and use geological heritage but associate this heritage with the other natural, cultural, and intangible assets of the region and climate change, as well, using these as integrated educational and tourism resources in pursuing sustainability of the geological heritage. Therefore, observing how the Geopark is associating with and using other types of heritage is one of the major evaluation items.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artnership**

UNESCO Global Geoparks are operated through partnership with local residents, various relevant institutions and groups, and other Geoparks targe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he items subject to evaluation include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Geopark,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duc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at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Cheongsong has proved effective in disseminating the value of its Geopark through educ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A vital element of this has been to cooperate with local elementary schools to include content related to Geoparks in the regular curriculum of these schools. The students learn about the geological heritage of the region for one semester, and then share the results of their learning at the Geopark festival. Such a programme teaches the importance of conservation of nature to students, and instills local pride in the students.

In addition, Cheongsong's senior educational programmes deliver value for Geoparks and also for the elderly. The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programme and field study pay visits to senior citizen centers, the local University of the Third Age,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encouraging local older residents to get involved with their UNESCO Global Geopark.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ourism

Cheongsong County is promoting local tourism based on geological heritage. Tourism programmes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partner companies offer employment to local residents and attract tourists, helping to create economic benefits for the region. Such an approach help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encourages residents to become involved in the preservation of the Geopark.

We hope that these efforts by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to preserve and simultaneously make use of the local geological heritage through educ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tourism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example for other Geoparks and IDAs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s.

Management of MIDAs in Yeoncheon

Mi-yeon YOO Ecology Expert Geology & Ecology Team at Yeoncheon County Office



Yeoncheon County is a UNESCO MIDA (being both a Biosphere Reserve, and a UNESCO Global Geopark),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using natural resources even though the area's location by the Demilitarized Zone (DMZ) along the border with North Korea means that it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f a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district. This presentation discussed the background to the promotion of Yeoncheon County as a UNESCO IDA, management systems for the MIDA,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future challenges.

Background and Process of Designation as a UNESCO MIDA

Yeoncheon County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ts size is around 1.2 times that of Seoul, but its population is only around 40,000 persons. Over 95 percent of the total area is designated as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districts, leading to huge limitations on

development. The local economy is therefore relatively sluggish.

The possibility of designating the area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was first discussed in the early 2000s, along with discussions on making the DMZ a zone of peace. However, because of insufficient consensus among residents, the government-led attempt at designation in 2012 failed. Following this, the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of residents was improved through education classes held for residents (the 'DMZ Resident Academy') and certification of the area as a National Geopark. As a result, in 2019, the whole area of Yeoncheon County was successfully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and in 2020,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 was certified. This successful designation of Yeoncheon County as a Biosphere Reserve used a resident-led bottom-up method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led top-down method, and offers model for designation led by the local community. The designation of Hantangang River as a UNESCO Global Geoparks also offers a model for cooperation between regions, being designated jointly by Yeoncheon County together with Pocheon City and Cheolwon County.

UNESCO MIDA Management System

Yeoncheon County established basic plan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Biosphere Reserve and UNESCO Global Geopark in 2020. On the basis of these plans, the county employed experts for each UNESCO IDA, and buil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team in charge within the County Office (the Geology and Ecology Team in the Department of Tourism). In particular, to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MIDA, the new establishment of a special 'UNESCO Division' integrating the related departments was proposed, and the county still holds the view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dedicated to managing the MIDA. Such systematic management plans contribute to th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conservation of na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by Yeoncheon County.

Conservation Projects and Biodiversity Monitoring

Yeoncheon County launched a biodiversity monitoring project along with Birds Korea in 2021. This project places an emphasis on monitoring the main habitats of Chinese Mergansers and Japanese cranes.

With plans to expand the IDA, the seasonal homes of Japanese cranes have been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and the Jaemin Falls are now a nationally-designated cultural property. Yeoncheon Imjingang River, the largest habitat for Chinese Mergansers, has been registered on the East Asian migratory birds movement path networks, strengthening the ecological importance of the Geopark. Such efforts do not just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UNESCO but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ve the international valu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region.

Building Partnerships for Conservation Tourism

One of the four policies of Yeoncheon County is “conservation tourism.” As part of this initiative, Yeoncheon has promoted the Hantangang River ecological wetland recovery project through cooperation with Birds Korea, an NGO, and UC Berkeley in the U.S., along with local businesses. The initiative promotes plans for ecological tourism, as well as arts and culture tourism, with special emphasis on Jung-myeon and Baekhak-myeon through projects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Gyeonggi Province. These endeavours have established a basis for the promotion of ecotourism in the area, making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Examples of activities include the installation of eco-friendly fences to protect the Japanese cranes, establishing the DMZ wetland ecological gardens to preserve biodiversity, providing activities so that visitors can see the Japanese cranes programmes, developing agricultural packages, and operating the DMZ Baekhak Culture Center (currently, the Baekhak Culture Shed).

Agricultural package products have been particularly successful, selling out within one month and contributing to increases in profits for residents. In addition, various geology and ecology-related programmes are operated, including performances within the actual scenery and based on traditional fairytales with an emphasis on the Jaein Falls. Other activities include a flea market, and nighttime astronomical observations. These activities are successful in attracting tourists and encouraging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and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model for sustainable use of natural and cultural assets in assisting the local economy.

Educating Residents and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Yeoncheon County worked to build community consensus through the DMZ Resident Academy for three years before the designation of these areas, and made efforts to help teachers, the senior citizen community, resident commissions, and tour guides understand the value of Biosphere Reserv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through training and regional visit education programmes.

The county is also conducting field studies in biodiversity since 2022 with support from the Gyeonggi Environmental Energy Agency and the UNESCO MAB National Committee for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classroom education. In addition, the county operated a “Hantan Imjingang River Ecotourism Society,” comprising residents and tour guides and “Birds Korea in Yeoncheon” aimed at residents of the local area and more widely in Gyeonggi

Province, teachers, and visitors. Yeoncheon County also works with schools around the region to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mes that bring together geology and ecology and arts, geological exploration,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 programmes. In addition, the county holds geology and ecology exhibitions with artists, to help publicize the MIDA and the geological and ecological value of Yeoncheon County to many people.

One example of a specific programme is the “Yeoncheon Connection Mates,” a vocational independence support programme for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the county operates together with the Yeoncheon County Support Centre for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Since 2023 the programme has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ree cultural activ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t as guides providing explanations for visitors at the Jaein Falls, in association with the job projects for the disabled led by the Department of Society and Welfare of Yeoncheon County Office. In addition, as part of the open tourist destination projec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actile signboards and braille programme leaflets are also being developed for the disabled.

These activities reflect the county’s efforts to involve residents as the active agents of conservation activities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simply as beneficiaries of, while also aiming allow everyone to enjoy tourism at the UNESCO Designated Areas equally.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operation

Yyeoncheon County i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xchanges by holding youth forums, seminars, and symposiums and by collaborating with a range of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UNESCO MAB National Committee for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Geological Park Office, EAAFP, and the ICLEI Korean Office. In particular, benchmarking efforts and exchanges with the networks of Biosphere Reserv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Biosphere Reserves on the Elbe River in Germany through ICLEI, and Haku Mountain UNESCO Global Geopark in Japan are enabling Yeoncheon to enhance its brand value significantly.

Yeoncheon also makes use of an integrated social media channel “Yeonnesco (Yeoncheon + UNESCO)” for the MIDAs of Yeoncheon County to share regional activities and performances while publicizing tourist attractions. The website for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 is integrated with other collaborative agencies, while the website for the Biosphere Reserve of Yeoncheon Imjingang River has been newly established within the website for Yeoncheon County Office. This has increased user convenience by linking the menu and website links for the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s site.

Future Challenges

Yeoncheon County plans to establish a new centre in 2025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having a specific organization to effectively operate the MIDA. The county plans to secure operational funds for the centre using a matching budget and a bidding process run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entre will have the goal of promoting further regional revital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Biosphere Reserve and UNESCO Global Geopark.

From here on out, Yeoncheon County is planning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domestic and overseas partners, and to continue its efforts to realize its vision as a county based on nature.

Group Discussion

Group 1

Management plans for Designated Areas by local governments

Value extension through local collaborations and branding was discussed as a key factor in the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by local governments. Cases were presented featuring instances of branding using unique ecological features of Designated Areas, showing commercial products featuring characters based on the living organisms (e.g. bears) in national parks as examples of promotional methods that attract the interest of visitors. It was noted that the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 has developed and used character products with regional identity as an element representing the region, and that this has encourage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The examples of the luxury village programme of Mudeungsan Mountain and the migration village of Hantangang River were discussed as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s. Mudeungsan Mountain strengthene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village through commercialization of regional specialties and tourism-associated programmes, which has also had positive impacts on increased regional profits and population influx. In the case of Hantangang River, the residents increased their capacities to carry out roles needed for the village through activities to enable each person to gain a qualification, which also helped ensure that community life was maintained. Based on this, a virtuous cycle of re-investment has been formed. During the group discussion, it wa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long-term, systematic plans for supporting economic activities led by local residents, going beyond short-term subsidy support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uild a systematic, long-term support system for securing sustainability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features by collaborating with local residents.

Group 2

Plan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rand-promotional activities

Group 2 discussed the plans that various agencies, including Yanggu County Offic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Seoraksan National Park, Seocheon County Office, and Buan

County Office, have to promote IDA brand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Example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ocheon County was mentioned as a successful case of improving the regional environment through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marine waste generated from tides. Residents have already improved the ecological value of the area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activities related to clean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county plans to encourage integrated nature and cultural tourism by training residents of Yubudo Island as tour guides. Seoraksan National Park is undertaking activities like the removal of introduced species and environmental clean-up alongside residents, and runs various educational programmes through Seoraksan Citizen University and Baekdudaegan Ecology School. However, efforts to associate local products with the IDA have not been effective, and the branding of dried pollack is being reviewed. Yanggu County presented plans to benchmark examples of resident gardener programmes and the biodiversity exploration groups, to exp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Examples of brand promotion

For the promotion of Ramsar Sites,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has attracted international interest by collaborating with Kia Tigers and installing promotional booths and distributing souvenirs. Seoraksan is promoting branding with an emphasis on souvenirs, and Seocheon County is working to encourage ecological tourism that embraces nature and culture by training residents as tour guides. The group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hrough education of residents and collaboration with enterprises to facilitat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rand-promotion activities. Additionally an integrated strategy is required to increase the brand value of IDAs.

Group 3

Programmes for collaboration and education of residents

Group 3 discussed successful management plans for IDA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of local residents.

Example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ocean school at the Seocheon tidal flats and the Geo-ranger programme of Juwangsang Mountain were shared as examples of instilling local pride among younger residents while teaching the importance of Designated Areas.

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shared details of how it has provided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to create profits through resident monitor programmes and has helped instill pride in regional conservation through monitoring and guide activities.

Brand promotion plans

Mudeungsan Mountain's citizen scientist programme associated data collected by residents on site with experts, increasing reliability and instilling a sense of pride in contributing to conservation in residents. In addi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schools, special programmes for IDAs were included in the regular curriculum, thereby spreading knowledge of the value of regional resources and their brand. The main discussion concentrated on the importance of programme differentiation and targeting the subjects for education. For instance, programmes targeting families with children were evaluat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give peopl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Designated Areas.

Group 4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brand use of MI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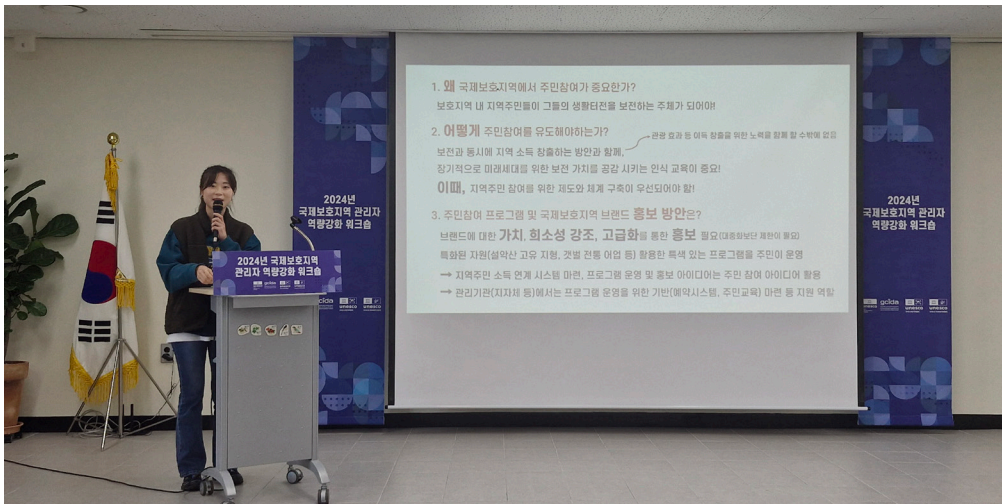
Group 4 discussed plans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IDAs and for using brands, with special emphasis on Ramsar Sit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in Gochang County. Gochang County involved residents in conducting environmental recovery and management activities paying wages to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moval of harmful plants and recovery tasks. Through this, the county built a virtuous cycle of environmental recovery and profit creation for residents. In addition, the roles of tour guides were stressed, and opinions were expressed that tour guides should be trained with capabilities to present integrated explanations on the features of IDAs, and that such expertis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in-depth education. In terms of plans for using brands, examples were given of logos for Biosphere Reserves being attached to the regional agricultural products to create economic effects, and the brand of "Gochang, World Heritage City" being used to encourage tourist visits.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building an archive to record and share the knowledge of regional tour guides with future guides was stressed.

Group 5

Strategy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randing

Group 5 placed special emphasis in their discussion on plan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by considering residents as the key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of the IDAs. It was mentioned that economic profits, such as from tourism, should be stressed in

the early stage to induc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t was concluded that it is vital to improve education and awareness of the value of conservation for the future generation and for the long term. As for brand strategy, small-scale experience programmes based on the value of the Designated Areas were presented as effective plans. Examples given included the exploration of goat habitats in Seoraksan and the traditional fishing experiences in Muan Tidal Flats. It was conclud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flect residents' opinions in the design and promotion of programmes while appropriately preparing the basis for programme operation by ensuring accessibility and providing support for education. Through such measures, local governments could increase resident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wareness about participation and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esignated Areas.



On-Site Vis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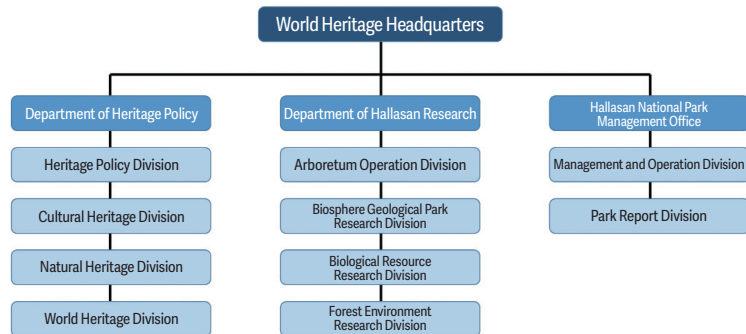
November 20 (Wed.)

Jeju World Heritage Centre, Seonheul-ri Dongbaekdongsan Wetlands (Meonmulkkak)

Roles of Jeju World Heritage Headquarters in relation to MIDAs in Jeju

Jin-seok KI
Academic Researcher
Jeju World Heritage Headquarters

The organizational chart and roles of Jeju World Heritage Headquarters were introduced, as well a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IDAs in Jeju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UNESCO Global Geoparks, Ramsar Sites). (Ramsar Sites are managed by the Yeongsangang River Environmental Office.)



Following this, the generation process of Jeju Island, geological features, ecosystems, and animals and plants were identified by wandering around the Jeju World Heritage Centre. More precisely, through a diorama representing the caves that are restricted from access for the general public, the generation process, structures, and products of Jeju Island were directly experienced.



Roles of Dongbaek Park Wetlands Centre in Seonheul-ri Resident Activities

Ho-seon KIM
Centre Director
Dongbaekdongsan
Wetlands Centre

The group walked from the western entrance of Dongbaekdongsan Wetlands to Meonmulkkak Wetlands (around 1 km) together with Centre Director Ho-seon Kim, listening to explanations on the status of Dongbaek Park Wetlands and cases of resident activities in Seonheul-ri. To preserve the IDAs of Seonheul-ri (Biosphere Reserves, UNESCO Global Geoparks, Ramsar Sites), residents have performed environmental purification activities on a regular basis. To revitalize economic activities of residents i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ecotourism programmes were developed and operated. In addition, in order to obtain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residents, the Dongbaekdongsan Wetlands Centre has consistently gathered residents' opinions and encouraged participation.



November 21 (Thu.) Ojo-ri Coastal Wetlands

Programmes for the Promotion of Ecotourism in Ojo- ri Coastal Wetlands and Migratory Birds Observation

Je-ryang KOH
Representative of Jeju
Ecotourism Society

Ki-bong KOH
Head of Ojo-ri

In December 2023, residents' activities in the designation of the coastal wetlands were identified while looking around Ojo-ri, designated as a migratory birds protection area and coastal wetlands for the first time in Jeju. Ojo-ri has developed coastal environmental purification activities, and it has nurtured resident monitors and coastal guides for preservation of these wetlands. Time was also allotted for looking around the coastal wetlands and identifying the origin and ecosystem of Ojo-ri.



**Ojo-ri Coastal
Wetlands Migratory
Birds Observation
Programme and
Viewing of the
Documentary
“Tidepool”**

Hyung-mook LIM
CEO Gingi and Badang

The Ojo-ri coastal wetlands were explored to discover various clams and other living organisms inhabiting the area, along with the visiting winter migratory birds.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documentary film “Tidepool” was viewed, with this film having been invited to the 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in San Francisco, representing a firs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reby allowing for close ob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containing living organis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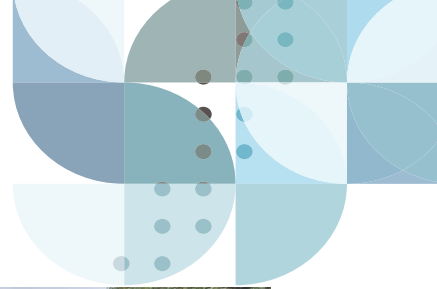
Photos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started energetically as all participants gathered together and posed for a photo.



Participants explore the unique charms of each local government at booths displaying promotional materials.



Participants ha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exploring Dongbaekdongsan in the rain.



Participants listen attentively to the passionate explanation by Kim Ho-jin, Director of the Dongbaek Park Wetlands Centre.



Participants smile in front of 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before exploring the Ojo-ri Coastal Wetland.



Participants pose for a photo during their tour of the Ojo-ri Coastal Wetlands.



While touring the Ojo-ri Coastal Wetlands,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origin of Ozori Village and its unique ecosystem.



Birdwatching to observe the wintering birds that visit the Ojo-ri Coastal Wetlands.

Shaping the Future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 A Collaborative Space for Ideas and Participation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IDAs

- How good i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your region?



- What can you do to promot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IDAs?

Improvement of awareness | Securing the Budget

Education | Jobs and budget |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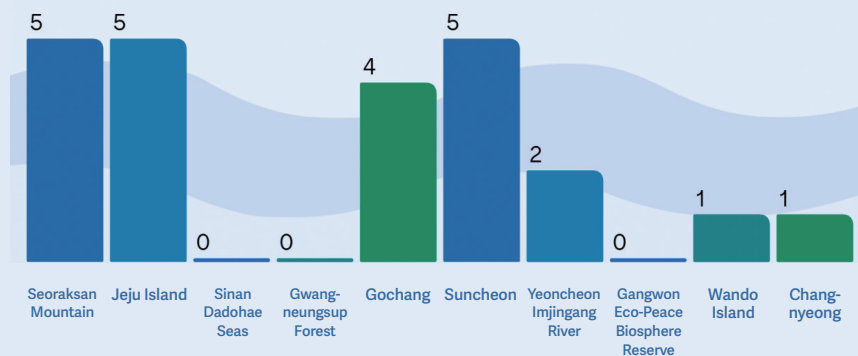
Improvement of awareness | Education of residents



•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World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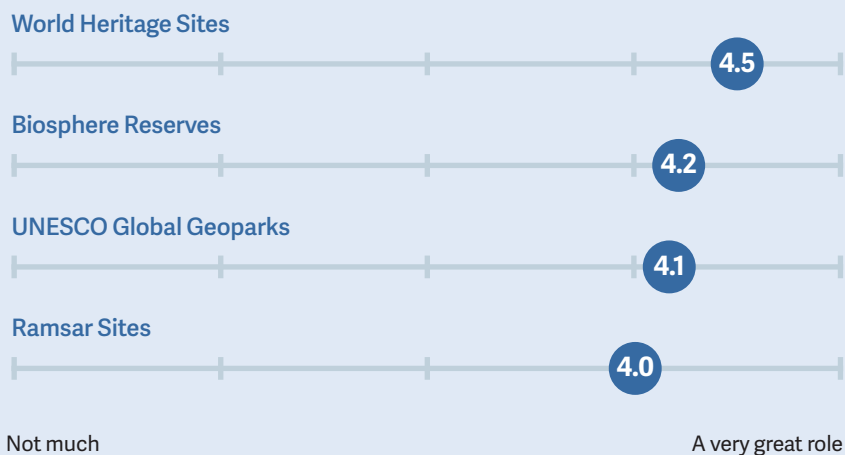
• Where have you been to among Biosphere Reserves?



• Where have you been to or known among Ramsar Sites?

Pyeongdumeseupji Wetlands | Upo Wetland
Yongneup Marsh | Pyeongdume | Suncheonman Bay
Suncheonman Bay | Changnyeong Upo Wetland
Ungokseupji Wetlands | Upo | Jeju Dongbaeksanseupji Wetlands
Jilmoeneup Marsh | Jilmoe | Gochang Ungokseupji Wetlands
Suncheon | Daebudo Mud Flats | Sinanjangdoseupji Wetlands

• How great a role does PR play in the security of awareness of IDAs?



• What is impressive or attractive among various PR plans in IDAs?

Child tour guide | Sports events | Stories of regions where residents live
PR associated between IDAs | Resident tour guide
Integrated tourism programmes | VR guide programmes | Brand value PR
Resident monitor | Media advertisement | Luxury forest
Luxury forest | Business cards of the director of local government
Cooperative village | Ties | Exploration programmes
Participation of residents

• How would you publicize your IDA in a few words?

The best | Resting area for migratory birds in East Asia | King's Forest
Place with various volcanoes | IDAs with people | IDAs in city centre
The region can be revived if we use the IDAs very well | IDAs in city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 Nature-based global city
Juwangsan Mountain made by volcanoes and sculptured by time

• What would be the best thing if designated as IDA?

Pride | Protection of biodiversity | Use of brand and revitalization of tourism
Conversion of economic growth paradigm | Enhancement of regional image
Becoming famous | Eco-friendly image |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creased regional awareness | Survival | Sustainable development
Coexistence between regions | Improved awareness of IDAs from the name
Citizens' efforts | Awareness of brand value of the region
Assets for the future generations |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use

• What would you like to do first if you go home after the seminar?

Share cases of other regions with my department
Think about plans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Spread the cases and ideas in my organization
Exchanges between IDAs | Cooperation with other IDAs
Grop for networking methods | Plans for cooperation with residents
Share the performance | Tell other staff to come next year
Grop for plans for PR of IDAs through association such as local festivals
PR for the next seminar

• What is the most memorable in the seminar?

Group discussion | Designation of wetlands of Ojo-ri as IDAs, led by residents

Sharing opinions with the common theme of IDAs

Sharing efforts and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 Passion of the staff

Networking | Ojo-ri coastal wetlands | Diversity of side dishes

Cases of residents of Seonheul-ri | Prize drawing at the last part

Ojo-ri cases | Importance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Understanding of concept of IDAs through education

Voluntary efforts of head and residents of village

Sharing of cases and networking | Snacks in Jeju Province

Networking between regions | Sharing of various cases

Observation and exploration | Ojo-ri village | Constant video shoot



Participant Survey Responses



A participant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shop and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Among 45 participants, 23 responded to the survey.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Workshop

• Relevance and Practicality of Topics

Most participants found the workshop topics highly relevant and practical for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protected areas. They particularly appreciated the expertise of the speakers and facilitators and the well-structured sessions.

• Impact of Field Visits

Field visits during the workshop were effective in enhancing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rotected areas and providing concrete insights for management strategies.

Feedback on Workshop Operations

• Venue and Facilities

Several participants highlighted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the venue, facilities, accommodation, and meals. Enhancing these aspects in future workshops is critical to boosting overall satisfaction.

• Satisfaction with Workshop Organization

Despite some operational challenges, participants express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overall organization. The program structure and management were generally well-received.

• Most Memorable Activities

Field visits were noted as the most memorable and impactful activity. Participants also valued the knowledge-sharing opportunities provided through case presentations and group discussions.

• Suggestions for Future Workshops

Participants suggested focusing 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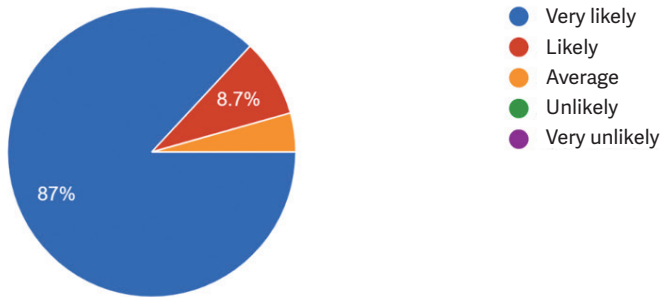
- Better accommodation and meal arrangements.
- Enhanced opportunities for in-depth discussions and exchanges among practitioners.
- Topics such as youth participation strategies and case studies, as well as 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for guides.

Additionally, participants expressed interest in hosting future workshops in multi-designated areas beyond Jeju Island. Strengthening breakout discussions an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was also recommended to support broader and deeper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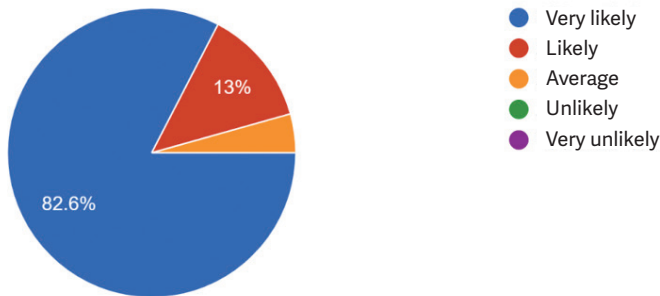
Conclusion and Future Plans

The survey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workshop effectively provided valuable insights on managing international protected areas and enhanced understanding through field visits. However, areas for improvement, such as logistical arrangements and practitioner-focused discussions, were identified. Moving forward, these recommendations will be carefully reviewed, and efforts will be made to develop more advanced workshops based on the proposed topics and program 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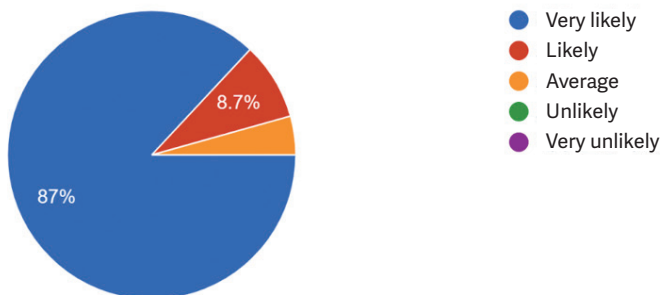
• Have the themes in the seminar been helpful for management of I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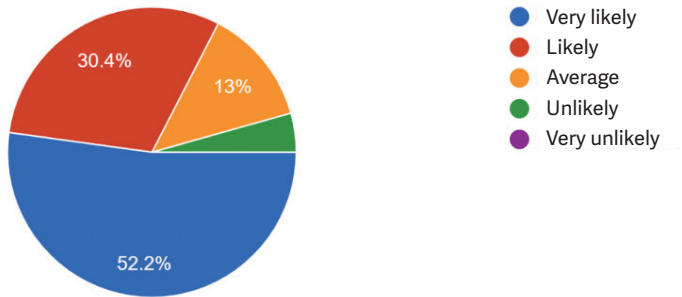
• Are the lecturers and facilitators for the seminar selected prop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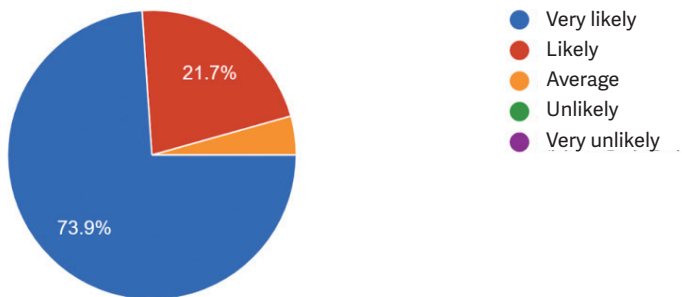
• Have the schedule and activities of on-site visit during the seminar been helpful for management and increased understanding on IDAs?



- Have the place and facilities (accommodations, meals, etc.) for the event been satisfactory?



- Are you satisfied with the general operation of th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 What was the most memorable or useful activity or content from the seminar?

-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IDAs through education
- Designation of Ojo-ri wetlands as IDAs
- On-site visit
- Tasty meals and on-site visit
- Sharing of cases of resident participation
- On-site visit to Ojo-ri
- On-site visit: Ojo-ri
- Sharing of cases of other regions through group discussion
- Sharing of case studies and examples of good practice between IDAs
- Sharing of cases of other agencies
- Networks and sharing of information with staff from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 Observation and explo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with other IDAs
- Visit to Dongbaek Village
- Help for presentation of cases
- Observation and exploration programme
- Visit to Ojo-ri wetlands and Dongbaekdongsan wetlands
- Presentation of examples from Cheongsong County and the like and visit to World
- Sharing of opinions on problems and solutions between managers of IDAs
- Operation of IDA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Jeju
- On-site visit
- The time for talking about the situations for actual sites and sharing cases and opinions with members of the group was more useful than I had thought.

• What should be corrected or improved for the next seminar?

- Time for sharing opinion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IDAs
- Prior notification: we need staff on the bus to guide on-site visits.
- No opinion
- On-site visits: it would have been nice to actually experience Geomunoreum through reservation.
- The dinner (wine and the like) for the third day did not match the event.
- Accommodation with one bedroom for one person
- Broader cases
- Strengthening of group discussions and drawing results
- The dinner place should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participants can make friends with each other more easily.
- Promotion for inducing more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more local governments
- Free discussion time between participants
- Expansion of on-site visits to IDAs
- Improved accommodation and programmes
- Accommodations near the City Centre
- A visit to Geomunoreum was expected but not provided, which was disappointing.
- Too tight of a schedule
- Time for operators to bond with each other for cooperation between IDAs in Korea
- The room was too small for three people.
- Exchange of opinions and discussions between working-level staff members for education and seminar through prior data on content related to I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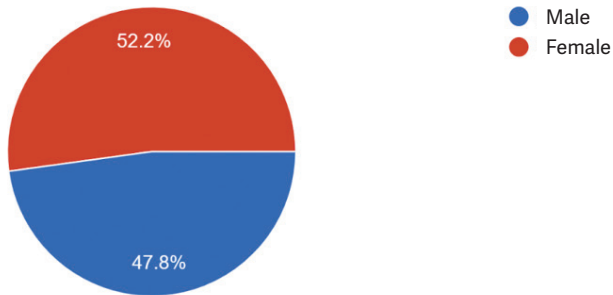
•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theme ideas for the next seminar for improv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IDAs.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ussion on the final goals of management plans after designation of IDAs · Networking with domestic and overseas managers · Examples of good practice in the utilization of IDAs · Seminar together with private sector · Overseas case studies · Sharing of examples of operation of IDA educational and tourism programmes · Sharing and solutions for problems of IDAs · Discussion and mind map for plans for ideal management of IDAs · Exclusion of common work (on-site matching) · Plans for and examples of expansion of youth participation · Accommodation in the city center, rather than onsite multi-use accommodation and on-si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site experiences in IDAs · In terms of objections from residents regarding regulations, the integration of various impact evaluation systems in accordance with each development law should be the first thing covered. Cooperation is needed between nations and agencies to bring effects related to relieving regulations through review of an integrated consultative body and the like. · A theme should be presented on the relations and ecosystem in the reg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nimals and plants in Korea and overseas rather than the limited ecology within IDAs. This will help foster cooperation between regions for protecting animals and plants. · Content of tour guides' explanation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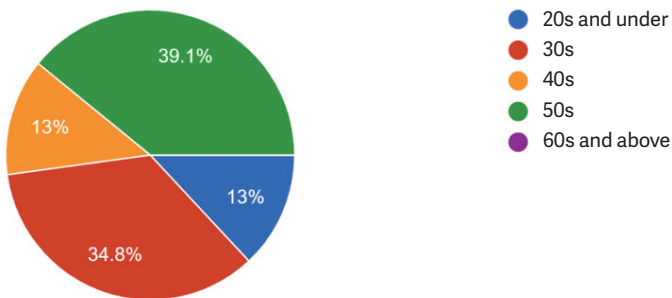
• Please let us know the programmes (courses) or content you want in the GCIDA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IDAs.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seminar in other areas than Jeju, especially for MIDAs · Practical work for the designation of IDAs · Regular educational courses ·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staff members in charge and networking with overseas managers · Prize drawing · Operation of a matching programme between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 On-site visit and coaching on management plans for each IDA and cooperation with residen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minar · Discovery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mes for increased participation rates · Discussion for each IDA · Arrangement of management regulations for the use of data from departments and business operator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sults of monitoring IDAs · It was so useful and provided a great time. I will always support and participate in GCIDA activities. ·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mes (special lectures by overseas experts from IDA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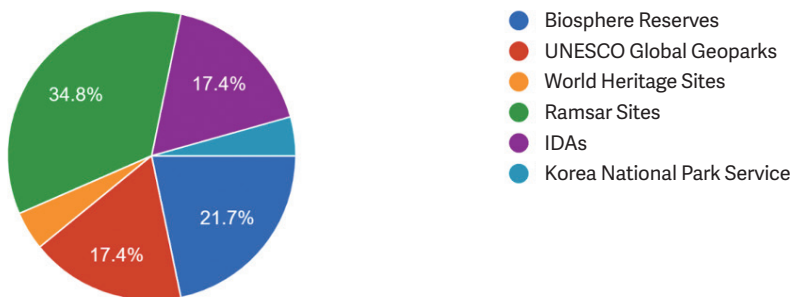
• What is your g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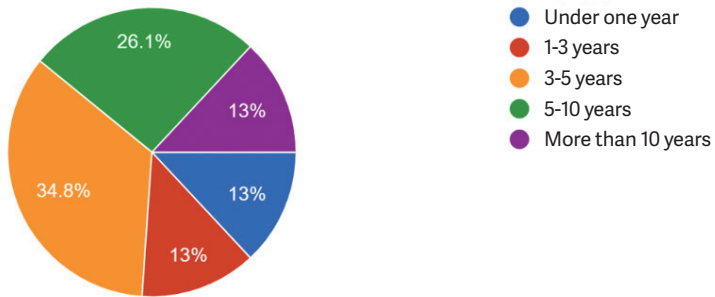
• What is your ag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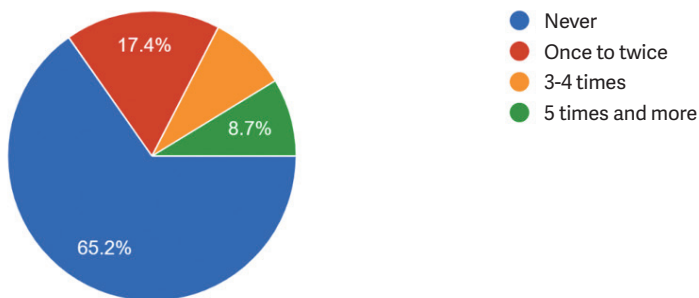
• What is your affiliation and related field?



• What is your length of service in the related field?



• How many times have you participated in education related to IDAs?



• What was your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seminar?



발행일 | 2024년 12월 23일

펴낸곳 |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 김태오, 한경구

편집자 | 김은영, 이윤하, 함태완, 정지우, 김유광

번역 | (주)아바커뮤니케이션

영문교열 | 김사라

디자인 | 수카디자인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2023, 제주돌문화공원 GCIDA사무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메일 | contact@unesco-gcida.org / ap.center@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gcida.org / www.unesco.or.kr

이 보고서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의
결과보고서로 발간되었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the final report of the 2024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organized by GCIDA,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 등록번호: SC-2024-RP-1

KNCU Registration No: SC-2024-RP-1

